



5. 아동·가족관계 분야

아동학의 사회적 기여.....국민대학교 교수 우 영 희

6. 가정교육 분야

가정교육분야의 교육적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고려대학교 교수 성 화 경

◇ 논평 및 질의 ◇

<17:30~18:00>

제 2 일 1981년 10월 17일(토)

◇ 분과별 학술 발표회 ◇

<10:00~12:00>

1. 가정관리 분야

- 아파트 외부 공간에 대한 주부의 관심도와 만족도 조사연구.....연세대학교 김 은 덕
- 아파트 주거자의 열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  
—난방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홍 영 기
- 농촌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 합리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윤 정 혜

2. 아동 및 가족 관계 분야

- 취학전 아동의 성 역할 식별 및 선호 발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김 경 미
-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전 경 숙

3. 식생활 분야

- 성장기의 영양이 그 이후 고 Cholesterol 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내지방 대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송 요 숙
- 소맥분의 조리 에 관한 연구  
—Butter 분량에 따른 Choux 형성에 관하여— .....영남대학교 이 정 숙
- 한국산 감귤류 폐과피 내의 Pectin 함량과 Pectin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 명 해
- 영양교육이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김 혜 경
- 식품 배합의 특이성 조사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 귀 선
- 식이내 단백질 제한과 회복이 흰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이 귀 세 라
- Cholesterol 첨가식이 흰쥐의 체내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이 옥 희

4. 의생활 분야

- 한국인의 신체성장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전 경 숙
- 여성의 직업과 의상흥미 영역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간 문 자
- 한일 고대 부장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 문 자
- 스커트 제작을 위한 원형 연구.....서울대학교 임 원 자
- 의복 행동과 사회적 안정감, 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최 혜 선

◇ 점심 식사 ◇

<12:00~13:30>

◇ 종합 질의 및 폐회 ◇

<13:30~14:00>

## 제 34차 총회 심포지움

주제 : 「가정학과 사회」

<目 次>

1. 발 제

한국 가정학의 역사.....윤서석(중앙대학교 교수)

2. 의생활 분야

의류학과 사회 .....정홍숙(서울대학교 강사)  
이인자(전국대학교 교수)  
신상욱(중앙대학교 교수)

3. 식생활 분야

식품영양학 분야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이종미(경상대학교 교수)

4. 가정관리 분야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문숙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 아동·가족관계 분야

아동학의 사회적 기여.....우영희(국민대학교 교수)

6. 가정교육 분야

가정 교육분야의 교육적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성화경(고려대학교 교수)

# 韓國 家政學의 歷史

中央大學校

教授 尹 瑞 石

Choong Ang University

Prof.: Seo Seok Yoon

오늘의 주제로 설정된 “家政學과 社會”는 家政學과 周邊環境의 相互關係性이 날로 증대하는 시대에 임하여 그간 한국가정학이 우리 社會에 기여한 바를 點檢하고 앞으로 보다 영향력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협의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家政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家庭을 중심으로 한 인성개발과 가족관계 및 생활자원의 필요성 및 소비·관리에 관한 가치체계를 설립하고, 행동의 합리성을 구현하여 가정생활이 個人과 家族 모두에게 충족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며, 사회변천에 임하여 역사성을 인식하고 對應과 適應의 調和를 이루어야 하는 學問입니다.

특히 家庭은 한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家政學의 目的具現은 바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經濟·文化 여러면의 安定과 富興에 필요한 기반구축에서 根源의인 動力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학 스스로의 발전과 가정학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는 바로 사회발전의 기본요건입니다.

더우기 현대사회에서는 家庭이 놓여있는 주변사회의 여러 실정(생활자원의 생산·유통·환경여건 등)이 家庭에서 人性을 개발하고 價值觀을 세우고 살림을 관리해 가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 때 家庭의 機能이 기대하는 바대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 가정학은 家庭과 周邊環境의 相互關係性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家庭과 社會의 심각한 상호관계성은 과학문명의 팽창과 인간성 상실문제 대두, 산업화, 도시화, 家事의 社會化,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 인구의 구조변화추세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더욱 절

실한 연구과제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家政學은 가정생활과 주변환경의 상호관계성으로 課題를 확대·추출·선정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할 필요성 증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해방이후의 家政학의 연구추세와 기여도를 점검해 본 바를 보고드리고, 家政學의 研究體系定立, 교육을 통한 家政學의 目的成就, 사회참여의 방안등에 관하여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 오늘의 주제인 「家政學과 社會」 아래에서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시고 협의하시는 자료 제 공으로 삼고저 합니다.

## · 朝鮮時代의 家政教育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家政」의 成敗가 社會秩序維持의 基盤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朝鮮時代에 널리 주지되어 있던 생각, 즉 “먼저 스스로의 修身을 알고 齊家의 理致를 알아야 다음에 天下를 다스릴 수 있다.”는 訓育理念은 「家政」에 관한 態度和 知識이 社會人으로서 領導의力量을 연마하는 기틀임을 강조하는 精神의 表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理念은 丁茶山의 「牧民心書」(齊家·禮典·祭祀·賓客 등)을 위시하여 여러 必讀書 및 肅宗代의 실학자 洪萬選이 지은 「山林經濟」와 哲宗代에 이것을 보완 간행한 「增補山林經濟」에 수록되어 있는 “家政篇”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女性을 위하여 「家政」의 기본을 수록한 訓育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英祖 12년(1736)에 우리말로 옮겨진 「女四書」, 成宗의 后 昭惠王后의 著인 「內訓」, 尤庵先生의 「戒女書」등을 볼 때 그 내용은

한결같이 가족관계와 육아, 의·식·주생활의 관리방법, 奉祭祠와 賓客의 規範, 스스로의 인격수양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우암선생 「戒女書」에는 家族關係, 奉祭, 賓客, 儉約과 勤勉등에 관한 규범은 물론이고, 물건의 매매, 貸借, 노비거느리는 근본까지를 이르고 있으며, 「한국가정학사」에 그 내용은 덕성교육(수신·예절·인간관계의 화친·국가보은)과 기술교육(봉제사·자녀양육·가사처리·재물과 금전관리·주택선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規範아래 집안에서 訓育되던 것이 學校現場으로 옮겨진 것은 19세기 말이며, 그 발단은 梨花學堂의 창설이었습니다. 教育內容은 「수예」, 「재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학교가 설립되고 教育內容이 「가사」 「재봉」 「수예」 기타 實科科目(일부 실업학교에서)으로 확대하였고, 30년대에 여자전문학교에 「家事科」가 분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教育內容은 家事實務處理에 관한 初步知識과 技能熟達에 편중된 것이었으며 家庭倫리나 家庭經營에 관한 意識의 高揚 또는 새로운 시대에 임할 家庭文化의 장달 등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단지 傳來하여 오는 慣例의 일부가 家庭에서 훈육되었을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解放直後期

해방을 맞이했던 다음 다음해인 1947년에 그간 「家事科」로 불리던 것을 「家政科」로 개칭하고(1947년—이대 가정학부, 1948년—숙대 가정학부 설립등) 동년에 「大韓家政學會」를 창립하여(초대회장에 조기홍선생님, 부회장에 박용경 선생님을 추대함) 새시대를 향한 家政學의 研究·教育·啓蒙을 전개하였습니다.

「家事科」가 「家政科」로 개칭된 사실은 家政學의 本質을 되찾게되는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고, 韓國家政學 發展의 효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背景에는 이 당시에 韓國教育界의 先導의 女性의 대부분이 家政學專攻者였고, 그분들의 家政學에 대한 定義와 理念이 선구적이었음을 대변합니다.

「大韓家政學會」의 創設은 民族의 얼을 찾는 세찬소리에 부응하여 가정과 교육계에서도 우리살림을 가르쳐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모인 것입니다. (대

한가정학회의 활동상—표경조—학회지 창간호) 이렇게 모인 家政學會는 학교별로 家政科研究修業을 하여 家政科教育의 새로운 內容과 方法을 示範하고, 육아·영양·경제·건축·정치·한글숙성·메주제조·궁중요리·미용등에 관한 講習會를 열어 새로운 知識을 傳達하고, 紡績工場·模範住宅 등을 견학하여 實狀을 探檢하였습니다.

이같이 가정학자는 해방직후 政治·經濟로 혼란이 격심하였던 와중에서도 오로지 家政科教育과 우리文化蘇生에 일심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때의 가정학 활동에서 미군정 문교부고문 Miss Haplon의 지원이 컸음이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같이 활동을 개시한 家政學者는 6·25동란 중에도 피난지 부산 昌德女高에 학회사무실을 두고 52.10월 임시총회를 여는등 학회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 · 1950年代

1953년 환도한후 10년간은 특히 가정학을 통하여 전후시대가 요청하는 科學的이고 經濟的인 家庭生活先導에 기여하고자 “생활의 합리화”를 기치로 하여 교육·계몽·연구를 추진하던 시기이며, 학회지를 발간하고, 미국가정학회(AHEA)와 세계가정학회(IFHE)에 참석하는 등 韓國家政學界의 基盤을 구축한 시기입니다.

1954년 공포한 中等學校 家政科教育課程은 이전의 「家事」를 「實業·家政」(남자—실업, 여자—가정)으로 개칭하고, 중학교에 주 5시간, 고등학교에 주 4~5시간(3학년 3~12시간)을 배정한 것이었으며 이런 개정은 家政科教育強化에 基盤이 되었읍니다. 여기에는 편수관·장학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가정학자를 선두로 하여 많은 가정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여성교육에 당당한 지도자로 임하고 있던 가정학계 선배여러분의 공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家政科關係 實習室의 設備基準을 세웠고, 한편으로 학회주최로 월례회·교사강습회·견학을 실시하여 새지식의 흡수와 계몽에 힘썼읍니다.

1954년에는 「학회월보」를 발간하고 1959년에는 「대한가정학회지」를 창간하였습니다. 學會誌의 創刊은 그간에 이룩한 家政學研究와 教育·啓蒙에 관한 業績의 蓄積이 家政學의 目的具現을 위한 動

力을 이루어 본격적인 軌道에 進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회지 창간호에 공표한 「대한가정학회 마크」는 가정학의 연구가 “빛”으로 밝혀지고 확산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여기에서 가정학자는 모여 “원”을 이루고, 이러한 “힘”이 제인으로 이어져 세계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뜻의 상징입니다.

창간호 권두편의 제목(창간사. 가정생활의 합리화—최이순, 축창간사. 우리것을 찾아 배우자—조기홍, 가정학연구에 힘쓰자—주월영, 가정과교육과 가정생활—현병진, 대한가정학회의 활동상—표경조)은 이때의 가정학의 활동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합니다.

특히 창간사에서 가정과교육의 기여도반성과 앞으로의 역할수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정학은 고유한 文化傳統과 함께 번천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對應性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生活의 科學化를 우선 과제로 하여 번천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理論과 方法을 교육에서 실천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남·여 모두의 認識과 支援이 의당히 있어야 하고, 家政科教育은 남·여공수교과로 과감히 檢討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5년부터 「미국가정학회」에 참석하고, 1958년부터 「세계가정학회」에 참석하고, 1956년 농촌지도·국제교도강습회에 대표가 참석하는 등 국제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生活의 科學化」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계량컵의 제작배부, 定量에 의한 生活計劃, 개량메추리·권장, 같은 값으로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방안등을 계몽하였습니다.

“生活의 科學化”를 기치로 하고 생활을 과학화할 수 있는 이론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면서 동란으로 찌든 家庭生活 再建에 活氣를 주고, 方法을 제시하여 方向을 알려주었음은 戰亂後 社會의 活力素를 불어넣는데 빛불과 같은 寄與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생활의 民主化方案을 적극 제창한 것도 이 시대였습니다.

### · 1960年代

1960년대는 앞서 제창하였던 “生活의 科學化를

본격적으로 구현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적극 추진(1차·2차)되고 한국의 經濟構造가 產業社會體系로 진입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주변에서는 科學知識이 급증하고 科學技術 開發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家政學界는 衣·食·住·家庭管理·育兒에 관한 自然科學의인 측면의 原理研究가 활발하였고, 原理適用의 方案을 모색하는데 힘썼습니다.

이같은 방향추진속에서 학회지에는 衣·食·住에 관한 원리지식의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외국가정대학의 教育內容 및 외국가정학의 動向이 적극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家政科教育의 혁신책과 시설기준, 女性教育에 대한 문교정책강화에 대한 제창등이 학회지를 통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食生活改善을 위한 전시회 會員의 作品발자, 새로운 가정용품의 소개를 위한 전시회를 60년대 후반 거의 매해 실시하였습니다. 韓國人의 營養勸獎量制定, 요식업과 일상식생활 개선을 위한 표준식단연구, 한국군인을 위한 C-Ration 개발, 기성부 대량생산에 임할 표준치수연구, 새로운 섬유에 대한 適性과 有用性研究, 시간과 에너지의 허비가 없는 가사노동문제등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또, 그 결과를 강연회·발표회·전시회·매스컴을 통한 소개와 계몽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번천하는 家庭倫理와 家族關係에 관심을 기울이고, 韓國學의 研究와 韓國文化再建에 대한 覺醒에 따라서 가정학자들이 韓國의 生活文化에 관한 歷史的 研究를 시작한 것도 이 시대입니다.

또한 家政大學이 설립되고(연대·이대·숙대·서울대학) 가정학관계 전문서가 속속 출간되었으며 미국의 선진가정학을 전공한 분들이 귀국하기 시작하여 家政學教育과 研究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 · 1970年代

197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가정학계는 家政學의 專門性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韓國社會가 고도의 產業成長을 추진하는 속에서 가정생활에도 科學技術開發의 影響이 새로운 문명의 양식으로 침투하였으며, 공동주택

의 급격한 보급, 식품가공개발의 보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에 따를 수 있는 문제성이 나타나 敎育界에서는 “人間性的 恢復”이 제창되던 때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축진의 방향과 비인간화의 방어문제, 공해문제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주변에서 學問의 研究가 매우 深化되고 細分化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 총회주제는 “70년대의 家政學 方向” 72년에는 “急變하는 社會와 家庭”을 주제로 설정하여 새로히 도전하여 오는 사회에 임할 家政學의 哲學과 方向을 탐색하였습니다.

특히 “急變하는 社會와 家庭”의 주제강연에서 그간 自然科學側面에 치중하여 온 家政學研究를 “人間發達과 人間關係”를 핵심으로하여 社會科學과의 연계성을 함께 강화해야겠다고 제창되었습니다. 또한 “急變하는 社會와 家庭” “科學的인 側面에서”의 두 초청강연에서는 現代社會와 家庭의 問題點을 논하고 科學技術의 發達は 人類의 幸福과 人間의 生活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科學技術의 基本哲學을 일깨우고 가정학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3년의 총회에서는 “家政學의 전문성과 영역” 74년에는 “未來의 家政學”이란 주제아래 가정학의 새로운 哲學과 方向모색을 具體化할 수 있는 토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어서 75년에는 “家政學의 研究” 76년에는 “가정과 지도내용의 체계화” 77년에는 “家政學의 本質” 78년에는 “사회변천에 따른 家政科 敎育課程”등 새로운 哲學을 구현할 수 있는 敎育內容을 研究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9년에는 다시 “大學敎育에 있어서의 家政學의 위치” 80년에는 “人間 生態學과 家政學”이라는 주제아래 現代 産業社會에 노인家政學의 定義와 研究內容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계획문제를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그 개념을 개척하는데 선도하였고, 家政學의 各영역은 전문

성이 심화되어 점점 세분화되어 자기 「服飾學會」, 「兒童學學會」, 「家庭管理學會」등이 새로 창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7년 “한·일 가정학회 상호 교류학술대회”에서 인접한 나라와 學術情報를 교류하였으며 이것은 민간의교적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정학의 연구로 박사학위가 수여되기 시작한 것도 70년대이며 이어 대학에는 가정학의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이 속속 설정되었습니다.

끝으로 1980-1981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初·中 高 敎育課程 改編作業에서 대한 가정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家政” 교과와 男·女共修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그 뜻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음을 여기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였던 “家政”의 男·女共修의 必要性을 다음에 있을 敎育課程 改編에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가정학계에서 깊은 연구와 많은 준비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家政學會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韓國家政學界의 業績을 대략 정리하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기여도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몇가지를 제언합니다.

- 그간 10여년에 걸쳐 계속 협의하여 온 탐색내용을 구두선에 그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구현방안을 정리하여 대학 및 각급학교의 敎育課程에서 실시하여 80년도의 社會發展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 中·高等學校 家政科敎育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家政學者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요즘은 새로 활발하게 전개하는 平生敎育課程, 言論과 기타 文化機關, 生活必須品生産機關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진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 行政部에 家政科 關係位置를 확보할 것입니다.

# 衣類學과 社會

서울대 鄭 興 淑

건국대 李 仁 子

중앙대 申 相 玉

## <目 次>

I. 衣類學的 學問的 性格

II. 衣類學的 社會的 寄與도와 問題點

1. 服飾 디자인 및 構成分野

2. 衣類 科學分野

3. 服飾 文化史分野

4. 衣服 社會心理學分野

5. 服飾 產業分野

II. 積極的인 社會寄與를 위한 衣類  
學 教育의 改善點 및 提言

## I. 衣類學的 學問的 性格

衣類學이 그 동안에 社會에 공헌한 바를 서술하려면 衣類學에 內包되어 있는 性格과 內容을 먼저 要約해야될 것 같다.

衣類學은 家政學(Human Ecology 또는 Family Ecosystem)의 한 專門分野로서 人間의 社會生態學的 側面에서 衣服(clothing)이라는 媒體를 통해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性格에 있어서는 自然科學, 社會學, 藝術 등의 세가지 面을 모두 포함한 綜合的 學問으로서의 特徵을 갖이게 된다. 즉 人體를 둘러 싸고 있는 自然環境을 극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기능적인 衣服製作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人間工學的인 측면과 被服衛生學的인 측면 또 이들의 素材를 연구하는 衣服材料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것이 自然科學的 立場이라면 衣服이 갖는 社會的 機能과 役割, 衣服을 着用함으로써 얻어지는 感情의 變化, 自我實現, 個性表現, 心理的 欲求의 만족등을 다루는 社會心理學的인 측면의 연구와 服飾文化의 社會的變遷을 연

구하는 歷史的 文化的 側面的 研究 그리고 衣類產業과 消費등을 다루는 것들은 社會學的인 立場이 될 것이며 보다 아름다운 衣服을 디자인하고 色彩를 研究하며 服飾의 美的인 側面을 다루는 것은 藝術的 立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衣類學이란 이와같은 모든 分野를 研究해야하는 綜合的인 學問의 性格을 띄우고 있다.

## II. 衣類學的 社會的 寄與도와 問題點

### 1. 服飾 디자인 및 構成分野

家政學的 發達史를 살펴보면 衣類分野에서는 1945年 해방이후부터 급진적인 變化와 發展이 있었다. 우리의 固有한 衣服이 아닌 西洋衣服이 우리생활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家政學者들은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법, 바르게 입는법 등을 가르치고 신문이나 잡지의 가정난을 통해 제몽하거나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9년에 大韓家政學會誌가 創刊되면서 西洋衣服의 명칭, 능률적인 構成方法, 때와 장소에 따라



서 어울리게 衣服을 着用하는 方法등에 대한 研究論文이 發表되면서 洋裁分野가 學問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편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양복과 함께 民族文化의 產物인 韓服에도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연구가 발표되었다.

비활동적이고 비능률적인 한복에 대한 개선책을 그 당시의 입장에서 설득력있게 서술했으며, 현대 생활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韓服으로 개선하기 위해 길게 판 깃, 짧은 치마, 짧은 소매 등의 개량된 韓服을 디자인하여 보급하려 하였다. 또한 평상복으로의 한복과 양복 외에 간소화된 結婚禮服, 喪服, 再生服, 활동하기에 편리한 속옷, 농촌부녀자들의 衣生活改善, 服裝禮義 등에 대한 연구와 제명이 실시되었다.

西洋衣服이 일상복으로 정착되어가면서 보다 실제적으로 衣生活을 과학화시키기 위해 디자인 및 구성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1967년에는 일선高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방한복을 衣服위생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함으로써 군복의 과학화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의류학의 연구범위가 일반복뿐 아니라 특수한 용도의 의복까지 확대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때까지 학교교재로 일본식 의복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나라 체형의 특성을 살려서 의복원형구성법을 1968년에 제시했다.

1970년대말까지 한국인의 體型에 관한 의복구성학적인 연구, 의복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체격에 관한 연구, 치수규격의 설정과 등급법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공업진흥청의 연구계획에 따라 1979년 서울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에서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人體計測을 全國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體位를 科學적으로 計測하여 韓國人의 標準值數를 設定하고 이를 활용하여 産業標準化를 기하며 이로써 모든 산업분야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 便益을 제공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표준치수가 설정되면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으로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원가절감과 자원절약이 가능해지

고 우리 체위에 알맞는 의상뿐 아니라 일상생활 용구 및 자동차, 농기구, 군수품 등 산업분야의 한국적 모델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으며, 모든 생산업자들이 우리 체위에 알맞는 제품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衣服構成을 위한 具體的이고 科學的인 研究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衣服의 機能面을 생각한 여유뿐이라던가 패턴제작을 위한 科學的인 方法등이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 2. 衣類 科學 分野

1950년대말에는 세계제 2차대전후 새로이 개발된 合成纖維가 보급되었고 이는 衣生活에 편리함을 가져옴으로써 의생활 개선에 더욱 박차를 더하게 하였다. 가정학자들은 새로운 섬유와 직물의 성질, 취급법 등을 연구 발표하는 등 현대적인 의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시도하였다. 1960년대초에도 가정학회지를 통해 화학섬유등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성질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여 의생활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복지에 관한 기본적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그 소비 현황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도모했다.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 도시까지 전국에 걸쳐서 의생활의 실태를 직업별로 조사하여 가정경제의 일부를 차지하는 衣服費의 절감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말부터 被服材料分野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 화학섬유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연구에 이어 직물가공, 염색, 오염성과 세척성, 직물의 外樣 변화 등 섬유과학분야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textile art 쪽의 연구논문은 별로 없었다. 被服材料分野에서 앞으로 개척해야 할 우리들만의 분야는 textile design, fabric design 으로 예술적인 안목과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衣類管理分野의 연구는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말까지 합리적인 의복계획, 장마철의 의생활 관리, 땀밴옷의 처리, 얼룩빼는 법, 푸새처리 등의

부정리쪽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초부터는 가정학의 방향이 “인간과 환경”, “被服과 人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衣類管理分野는 人體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적응 또는 극복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즉 쾌적하고 기능적인 의복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人體의 생리조건과 형태, 근육운동에 관계되는 被服衛生學의 研究論文이 發表되기 시작했다.

### 3. 服飾 文化史分野

1960년대 중반부에 한국 최초로 家政大學이 창설되면서 의생활분야는 적극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韓服研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복의 구성과 기능적인 면에만 치중되어오던 것이 韓國學에 대한 관심이 高潮됨과 함께 한복의 역사적이고 학술과 미적인 분석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복의 기원과 형태의 변화, 사용되었던 직물, 자수문양, 머리모양, 신발, 장신구 등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주로 과거의 복식을 재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문헌연구 및 고증으로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결실이다. 연구의 진행으로 점차 한국복식의 흐름에 관한 윤곽이 개괄적이나마 잡히게 되자 보다 주제성있는 한국服飾史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어느정도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복식사뿐 아니라 서양복식사 연구도 1960년대 말부터 가정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고, 1977년에 한국의류학회지와 복식학회지가 창간된 것을 계기로 연구보고가 활발하게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服飾史 연구논문은 의복이라는 물질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그 자체의 형태상의 변천만을 단지 연대순으로 추종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역사학 일반이 그런 것처럼 古文書나 벽화, 명화, 遺品 등에서 발견된 과거의 사실은 「인간」과 연관되어서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되며 服飾이 역사적으로 확립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복을 생산하고 그것을 몸에 걸치는 「인간」의 역사가 구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服飾은 기후, 정치경제, 사회, 종교, 예술, 풍속과 같은 환경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服飾이 단순히 이들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服飾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몸에 입혀질때 비로소 그 독자성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服飾의 본질은 인간정신의 탐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服飾史연구는 인간들이 입고 있던 服飾을 인간과 함께 연구해야할 것이다. 服飾史는 文化史의 一分野로서 服飾史연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문화사연구가 목표로 하는 것 같이 하나의 사실, 하나의 행위중에 그 사실이나 행위를 지탱했던 인간의 정신을 찾아내는 일 즉 느끼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服飾史연구는 인간정신의 구체적 표현인 복식디자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류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넓고 깊은 연구가 기대된다.

### 4. 衣服社會心理學 分野

衣服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연구는 1948년 미국의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는 의복의 재료와 구성을 중심으로 미적 측면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 치중해서 연구해오던 의복분야가 전쟁의 잔해가 가져지고 사람들이 안정됨에 따라 人間尊嚴性을 찾기 위한 心理學의 發達과 더불어 人間의 深層에 깔려있는 自我意識이라든가 性格·價值觀·人間行動 등이 衣服이 중요한 要因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되어 이 方面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1974년 최초로 大韓家政學會誌와 延世大 論叢 등에 衣裳心理에 관한 研究論文이 發表된 이래 계속해서 각대학의 대학원 석사논문과 학술지의 연구논문이 衣服의 社會心理學의 側面에서 많이 發表되고 있다. 現在까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衣服과 性格과의 相關性, 流行性과 個性, 自我概念과 衣服行動, 價值觀과 衣服行動, 衣裳興味와 背景등에 관한 研究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學界와 業界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결과는 新聞이나 방송등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衣服이 가지는 心理的, 社會的 反應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研究報告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時點에서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즉 이와같은 論文의 상당 수가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기초가 없이 기왕에 연구된 패턴을 되풀이 해서 간단한 질문지에 의한 통계 숫자로 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社會學的 調査나 心理的인 測定은 몇가지 問項 정도의 질문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측정에 있어서는 標準化 되거나 信賴度와 妥當度가 檢證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外國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그것이 韓國의 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調査를 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10~15문항 정도의 質問項目으로 心理的인 측면을 조사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기계와 달라서 變化가 많고 無意識의 世界가 作用을 하고 認知할 수 없는 너무나 폭 넓은 世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個個人的인 personality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간단한 질문으로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妥當性 있는 測定道具를 개발해서 후배들의 연구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검사지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연세대에서 개발된 “유행성”에 관한 설문지와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에서 개발된 “의상흥미도 검사지”인데 이들은 요인분석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얻은 검사지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學界뿐만 아니라 衣類產業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소비자 선호도 등에 관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fashion therapy 라고 해서 衣服이 임상심리를 통한 치료법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分野까지 研究의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많은 발전과 공헌을 기해야 할 것이다.

## 5. 服飾 産業分野

衣類學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發展이 더디고 研究가 소홀히 된 것은 服飾의 産業分野인 것 같다. 즉 大學이나 大學院에서 衣類를 專攻한 사람의 대부분이 學界나 教育界로 진출해 왔기 때문에 産業界로 진출하는 것이 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꺼렸었던 것 같다. 그러나 經濟의 급속한 成長은 産業分野는 물론 모든 生活樣式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고 소비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注文生産이 지양되고 기성제품의 대량생산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現代社會의 要求에 호응할 수 있는 衣類學의 專攻分野를 펼쳐나아가야 할 것이다. 衣類學界와 衣類産業界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있어서 學校教育은 業界에 별로 큰 영향을 못미치고 있으며 業界는 短期課程의 學院을 거쳐나간 사람들이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기술을 익혀서 그들 나름대로의 牙城을 쌓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 10월현재 서울市內에 있는 大學의 衣類學科나 衣裳學科 卒業生이 기성복 업체와 개인의 의상실등에 270여명이 경영하거나 디자이너 코오더네이터등을 종사하고 있으나 큰 業體가 아닌 경우 業界의 賃金에 맞지 않아 계속적인 직업으로 밀고 나가기가 힘든 경향이 있다. 물론 개 중에는 큰 업체에서 비교적 능력을 발휘하여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에게서 외국의 디자인을 모방하는데 불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패턴 제작 능력등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校教育이 業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거나 學界와 業界가 계속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고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衣類産業界는 크게 發展을 기하기 힘들 것이다. 표준 사이즈 문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기성복의 패턴과 제작문제, 기성복의 品質에 관한문제, 價格문제, 옷감과 디자인 등의 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大學教育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된다.

### Ⅲ. 積極的인 社會寄與를 위한 衣類學教育的 改善點 및 提言

다음은 衣類學을 專攻하고 社會에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進路를 모색해보고 여기에 필요한 衣類學教育的 諸問題點을 생각해보며 그 改善方案을 提示해 보려한다.

衣類學을 專攻한 사람이 가질수 있는 社會寄與의 길(職業이라고 해도 좋다)은 다음과 같다.

- A. 學界 : 大學教授, 博物館의 專門要員, 研究所의 研究員, 中·高等學校의 教師, 學院의 講師, 職業專門校의 敎講師, 職業專門校運營, 消費商品 研究.
- B. 產業界 : fashion coordinator, 衣類產業界의 디자이너·패턴메이커 또는 buyer, 의상실 自營, 기성복업체 운영, 衣類生産業, 衣類輸入 또는 輸出業, 專門機能業, 衣類유통기관의 판매업, 백화점의 디자이너 코너.
- C. 其他 : 신문이나 패션전문지의 記者, 라디오나 T.V 등 Mass media 의 P.D., 衣裳評論家, 衣類管理士, 직물실험실의 研究員, 專門機能보유자(수공예품 종류), 官公署의 研究要員, 檢査要員, 消費者保護기관의 요원.

대강 이상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大學卒業후의 進路를 學界와 產業界, 其他 등으로 분류 해볼 때에 現在의 衣類學教育에 있어서 學界의 進출을 위해서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產業界의 進출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提言을 해 보고자 한다.

大學教育的의 경우 衣類學을 專攻하는 커리큘럼에 있어서 中·高等學校에서 길러진 기초능력의 토대 위에 專門知識에 대한 理論과 實技를 習得함은 물론이러니와 오늘의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의 fashion 産業世界에서 발휘 될 수 있는 專門의 기술 능력을 갖도록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衣服構成 과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fashion illustration, 패턴제작 및 grading 등의 기술습득이

매우 중요하며 부분봉제 등의 기초적 능력과 함께 高性能機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現代化하여 fashion 産業과 一體感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워야 할 것이다. 또한 人間工學的인 연구와 구성상의 필요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기성복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衣類科學分野 중 피복재료는 現在 家政專門에 있어서의 衣類學의 性格보다는 工科大學 섬유학과 의 性格을 다분히 띄우고 있어 실제로 이용도가 높지 않다.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예술적인 창의력을 발휘한 fabric designer 를 길러내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服飾文化史 分野의 研究는 최근 傳統文化에 대한 재인식 및 재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우리의 傳統文化의 형성 및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東西洋服飾에 대한 다각적 연구는 傳統文化의 再現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 방법으로 각 박물관 및 민속문화 연구소 등에도 專門的인 研究員으로 服飾史를 전공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衣服의 社會心理學的 側面의 研究는 이것이 곧 바로 社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社會生活에 도움을 주고 價値觀 形成에 영향을 미치며 衣服을 통해서 보다 成功的인 社會生活을 영위하고 좋은 性格形成을 이룰 수 있는 方向의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消費者情報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調查研究하여 衣生活와 衣類産業에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衣類産業界의 進출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教育方案으로서는 大學의 커리큘럼속에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Business 등의 과목을 두며 교직계 진출자를 위해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産業界進出희망자에게 現場實習을 실시하여 패션산업의 구조에 잘 對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衣類學 專攻者의 기술능력이 증대되고 이와 더불어 産業社會에 體系가 잡혀 經濟的인 安定과 富強이 이루어진다면 Fashion 産業界에 研究者 및 生産者로서 衣類學專攻 出身들의 進路가 開

拓될 것이다. 특히 Fashion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나 Coordinator, Pattern maker 등은 衣類學을 專功한 사람만의 分野임을 생각하고 産業協同을 다짐해 나아가야 할 國家的 決元에서 볼 때에도 커리큘럼의 개선등 많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참고문헌목록」, 1976.
-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의생활편, 1977.
-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1959~1980.
-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1977~1981.
- 한국복식학회, 「복식」, 1977~1980.
- 조규화, “복식의장학의 과제”, 「복식」 2號, 1978.
- 홍혜숙, “한국복식관계 문헌해제목록”——1945년부터 1973년까지——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 資料 提供(가나다순)

- 이순원(서울대)
- 임숙자(이화여대)
- 임원자(서울대)
- 유송옥(성균관대)
- 유희경(이화여대)
- 윤서석(중앙대)

# 식품 영양학 분야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ocial Contribution of Food and Nutrition Part

경상대학교 이공대학 식품영양학과

조 교 수 이 종 미

Dep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Jong Mee Lee

<차 례>

### I. 서 론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는데 기여

### II. 사회기여도

5. 식량정책 수립에 기여

1. 영양지식 보급에 기여

6. 인적자원 배출에 기여

2. 식생활 관리의 합리화에 기여

### III. 결 론

3. 전통 음식 보급에 기여

참고문헌

4. 식품에의 편견, 유행 및 오도에

## I. 서 론

인류 생활에 있어서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 나라의 식생활 전통은 그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되어져 왔다.

20 세기에 이르러 영양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식품은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본적 요소임이 인식 되었고 양호한 영양 상태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적합한 식품 종류의 질적인 선택과 양적인 배합 및 섭취방법의 계획이 요구되어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식품학, 경제학등의 발달과 더불어 이들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응용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영양학, 조리 과학등이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 또한 식품은 건강 유지라는 생리적 측면 외에 심리적 가치와 사회적 의의, 만족감의 만족등을 위해서도 섭취하게 되므로 개인, 가족 나아가서는 지역, 국가 단위의 독특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양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되므로 영양학은 현재의 식습관을 바탕으로 한 식량 생산, 수급의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식생활 개선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영양 정책 수립에까지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기본은 학문적 배경없이 각 가정에서만 구전(口傳)과 실습을 통한 소극적 방법, 그리고 기후, 풍토 및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없이 자기 지역 고유의 식품만을 이용한 토착성과 경험에 의한 합리성으로 영위 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땅에 가정학이 전래되면서 부터 식품영양학 전공자들은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합리성을 학문적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할 하고 체계를 세워 나갔으며 생활 과학의 한 분야로써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했는가? 고찰해 보고져 한다.

## II. 사회기여도

### 1. 영양지식 보급에 기여

우리의 영양학자들은 영양소의 과·부족없이 균

형된 식사를 취하기 위해 어느 한 식품에 편중된 식사가 아니라 기초 식품군별에 따른 식품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영양 지식을 보급 시켰다. 이를 보급 시키는데 있어서는 외국의 식생활 Pattern을 무작정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Nutritional Science 만을 도입해서 경리의 식생활 Pattern에 적용시킨 영양 지식을 보급시켰다. 즉 영양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 식생활의 허·실을 찾아내 이를 보완, 장려했으며 일반 대중에게 이를 보급 시켰다. 예를 들면 채<sup>16)</sup> 등에 의한 70여편에 이르는 각종 실태 조사 및 동물 실험을 통한 자료<sup>17)</sup>를 바탕으로 곡류 과잉 섭취에서 오는 각종 영양소 불균형의 문제를 우리나라 식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고 이의 시정을 위한 각종의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문제점 시정의 한 보완책으로 식사시 밥량의 감소와 도시락의 밥 그릇과 반찬 그릇 크기의 균형을 바로 잡도록 인식시켰다. 또한 당질의 섭취량을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Cellulose 첨가가 대사상 좋은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하므로써 곡류를 많이 먹는 우리 식생활 Pattern에서 부식의 주재료인 채소류의 섭취가 합리적이었음을 영양학적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한국인의 영양 섭취 현황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의 섭취량의 증가가 문제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과 같은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 양의 결정문제 뿐 아니라 지방의 종류 및 그 배합 비율을 동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2. 식생활 관리의 합리화에 기여

식생활 관리의 합리화는 영양 필요량을 만족시키고, 각 가정의 경제 상태에 적합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고, 자기 가족의 기호에 알맞는 식사가 되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일반사회에 영양 지식의 많은 보급은 그 결과 가정과 대중음식점에서 영양 원리에 입각한 식생활 관리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되어 가정에서는 외상, 결상 또 7첩, 9첩, 12첩 반상등의 식사형태 때문에 같은 종류의 식품선택, 같은 종류의 맛의 배합, 조리법의 중복 등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식품의 낭비 및 경제적, 영양적, 시간적 그리고 노력의 손실을 가져왔던 과거의 식사형태에서 벗어나 기초 식품군을 근거로 식품 구성을 하므로써 합리적 식생활 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탁예절과 Serving 방법등의 개선 결과로 개인 접시들을 사용하게 되어 식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해 단위화폐당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의 양과 그 식품량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량을 비교 검토시켜 줌<sup>18)</sup>으로써 주부들이 가장 싼 값에 영양소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식품선택의 능력을 키워 주었고, 또한 조리시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합리적 조리 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므로써 조리법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써 채소 조리시 조리용액, 조리방법, 조리온도, 향신료 및 조미료의 첨가 종류가 비타민의 잔존율 및 이용율의 차이를 가져 왔으며, 우리의 겨울철 Vit C의 좋은 공급원인 김치의 숙성조건 및 성분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김치에 당근을 10%이상 첨가하게 했을 때 당근의 Ascorbinase에 의해 Vit C의 파괴가 현저히 나타남을 보고 하므로 김치 담글 때 당근의 과량 사용을 억제토록 인식시켰다.

한편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는 기초식품군별 배합에 의한 식품 종류의 선택과 합리적 조리방법 선택으로 표준 식단을 제시해주므로 상차림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과거 상차림에서는 같은 상에 깍뚜기, 무생나물, 무숙채, 또 닭찜, 갈비찜, 생선찜등과 같이 영양 지식의 무지로 인해서 조리법만 달리한 같은 종류의 식품 선택과 재료를 달리한 조리법의 중복으로 영양적,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낭비가 컸으나 영양지식의 보급 결과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 영양면과 조리법의 합리적 선택으로 상차림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 3. 전통 음식 보급에 기여

과거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신분제급구조로 인한 상·하층간의 2중성은 식생활면에서도 2중구조를 견지해오도록 하여 반상제급간의 차이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면의 발전과 더불어 이 나라에 가정과 교육이 전래되면서 궁중음

식과 상류사회음식등이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게 되었고 이들이 각 가정과 사회에 나가 자기가 속한 생활분야를 통해 알게 모르게 보급시켜 오늘날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이었던 신선로, 구절판등의 상류층 음식이 대중화하게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식생활 분야의 전문인들은 각 향토 식품의 발굴과 각종 출판물등을 통해 이의 전수 및 보급에 힘써, 오늘날 지역적 특성이 무너진채 전국적으로 음식 문화의 교류와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 4. 식품에의 편견, 유행 및 오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는데 기여

한정된 경작지 속에 날로 팽창하는 인구.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생산의 불균형, 저장시설의 불충분, 그 결과 발생하는 수요·공급상의 불균형 등 이상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가공의 필요성은 부득이 하였다.

식품가공시에는 가공중 발생될 영양손실의 최소화와 부족한 영양소의 강화등의 영양소적 요소 그리고 색, 향기, 맛 점탄성과 같은 기호적 요소와 함께 식품의 특질을 살린 상품성, 언제 쓰이며 언제 먹을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적극적인 저장성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들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이를 강조하게 되다보니 일부 편견을 가진 자들이 무공해식품 또는 자연식품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식생활 관계자들은 무공해식품과 자연식품의 한계 및 경의를 내려주고 이러한 식품들이 건강식품 또는 만병통치 식품인양 일부 대중에게 잘못 인식시킨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Mass Media 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영양지식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대중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식품공해에 대비한 올바른 섭취방법의 교육도 함께 행하여졌는데 과거와는 달리 식품재배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식품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를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 오염도를 측정 발표하고 이들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

는 반면 오염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식품취급법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비타민 섭취의 한 방법으로 조리시 뜸들의 이용, 껍질채 과일이나 생채소를 먹도록 권장했고, 과피를 이용한 조리법 이용등이 적극 권장되었으나 요즘은 흐르는 물에 과일과 채소를 여러번 깨끗이 씻고 가능한한 껍질을 두껍게 벗겨 먹으며, 껍질을 이용한 음식의 조리법등을 억제하도록 실험에 의한 지식을 적용하여 대중에게 보급하여 왔다.

또한 어떤 한 식품에의 편견과 유행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데에도 기여를 해 왔다. 즉 건강과 영양과의 절대적 관계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의 “영양은 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의해 어느 질병에는 어떤 식품이 좋고 나쁘며, 건강을 위해서도 어떤 식품이 아주 좋다는 유행이 생겨나기 시작해 대중을 오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영양학자들은 영양학을 근거로하여 이를 사정하는데 노력을 해 왔다. 예를 들면 당뇨병에는 울무, 보리밥, 꿀, 초란등의 식품이 유효하고 울무는 노화방지뿐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는 식품이며, 혈압을 내리는데는 당근즙이 유효하고 마늘은 강장제라는 등의 Food Fadism 과 산·알카리 식품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등이 성행될 때 이를 영양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5. 식량정책 수립에 기여

한국의 영양권장량 책정시 많은 영양학자들이 참여해 각종의 실태조사 및 실험자료를 근거로한 식품섭취의 목표를 설정하므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혼·분식장려정책때도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혼·분식의 장·단점 및 혼식 비율등을 각종 동물실험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건의 하였고, 분식 장려시에도 밀가루 섭취시의 영양적 허·실 및 그 보완책, 그리고 조리시의 영양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제 요인들을 각종의 실험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제시하므로써 식량정책 수립에 간접적 참여를 했다. 또한 육류 파동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등 육류의 종류별 영양가와 가격비교 및 조리법의 개발등으로 육류소비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고추파동



시 고추의 식품학적, 영양학적 의의를 정의해 주므로써 고추소비의 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 낙농품의 보급 특히 우유섭취시의 영양학적 의의를 각종의 실험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제시하므로써 우유 섭취의 증가를 꾀하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우유섭취의 중요성을 건의하므로써 문교부 학교급식과를 통해 국민학교 급식에 있어서의 우유섭취권장이라는 정책수립에도 반영하도록 기여를 했다.

### 6. 인적자원 배출에 기여

1886년 이화학당에 가정과목이 개설되고 1929년 4월 첫 신입생 32명이 입학한 이래 현재에 이르러 전국의 가정대학의 수는 9개이며 가정학 계통의 4년제 대학의 학과수는 43개학과로서 작년 한 해만해도 전문대 3,729명, 대학 2,012명, 대학원 250명의 가정학 분야의 인적자원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연구소등의 전문기관, 교육기관, 단체 급식소, 병원, 정부기관, 홍보분야, 식품품 제조업체 등등 각 분야에 널리 퍼져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식생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생활인으로써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바 크다. 이렇게 배출된 많은 전문인들은 전문 학술지만을 통해 연구·활동만을 한것이 아니라 Research 자료를 근거로 대중언어를 사용해 강연, 방송, T.V. 및 신문, 잡지등의 Mass Media 를 통해 대중 계몽사업과 대중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출판물을 통해 식생활 문화의 보급과 체제화를 이룩해 왔다.

### III. 결 론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식품영양학 분야가 학문적 배경없이 지내온 이 나라에서 사회에 기여한 업적은 몇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우리의 업적이 좀 더 과학적 근거와 역사에 비추어 비판 분석되어지고 미비한 점이 노출되어 앞으로는 더욱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인적 자원의 활용과 영양교육망의 확대등으로 영양연구자, 영양교육자, 영양교육

을 담당하는 공무원, 병원급식담당자, 사업소급식의 관리책임자들의 전문분야에서 합리적, 적극적, 과학적 접근으로 식생활개선과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더 과감하게 이바지하여야 하겠고 특히 언론, 방송기관의 가정관 담당자가 가정학을 전공한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Mass Communication 을 통한 영양교육의 오도가 대중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학문적 측면에서 실험 및 연구 조사를 통해 얻은 연구자료들을 종합하여 식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과학적 방법의 개발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리법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과학화, 이의 교육방법 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졸업후 자기 Position 에서 Stop 시키는 것이 아니라 2~3년후에 한번씩 전문기관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갖거나 on-the-job training(현장교육)의 기회를 가져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하고 식생활은 생활과학이니만큼 비전문인인 대중속에 파고들어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대한 가정학회지, 1968~1981년까지.
2. 한국 식품과학회지, 1969~1981년까지.
3. 한국 영양식량학회지, 1972~1981년까지.
4. 한국 영양학회지, 1968~1981년까지.
5.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연구원보, 1964~1980까지.
6. 국립화학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보고, 1948~1962년까지.
7. 보건사회부: 국민영양조사보고, 1969~1979까지
8. 한국 과학기술처: 한국과학기술처연구보고서, 1972~1979.
9. F.A.O. 한국협회: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 3개 정판, 1979.
10. 가정학 석사 논문집: 1945~1979년까지
11. 경상대학교 논문집, 1962~1980년까지
12. 덕성여대 논문집, 1972~1980년까지
13. 성신여대 논문집, 1975.
14. 김 숙희, 이 기열: 한국인 식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15. 채 예석: 경성을 중심으로 한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조사 보고, 국립화학연구소보고, 1;65, 1948.
16. 현 기순: 식생활 관리학, 교문사, 1976.

#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문 숙 재

<목 차>	
I. 서 론	사회적 기여도와 문제점
II.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성격	2.1 주거분야
III. 가정관리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와 문제점	2.2 가정경제 및 소비자경제분야
1. 가정학연구와 가정관리학연구의 경향	2.3 가사노동 및 자원관리분야
2. 가정관리학 연구의 각 부문별	IV. 결 론
	참고문헌

## I. 서 론

신체적인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런 양육의 필요성은 보금자리 형성을 요구하고 그 형성을 위해 기술과 사회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신체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는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수련을 한다든가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사회적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곳이 가정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의 목적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정관리행동의 과업이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적인 제도로서 주어진 환경의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기술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인생관은 가족 및 개인의 욕구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반면, 한 사회의 기술경제 발전은 자원조달과 자원소비의 방

법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정의 부양기능 성취를 위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즉 개개의 사회의 상이한 환경적 여건은 가정관리행동을 위해 상이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원시적 기술이나 빈곤, 혹은 사회적 통제나 정치적 압력은 가정관리행동의 행동반경을 좁게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행동반경을 넓게 한다. 또한 환경은 가정관리행동을 위해 행동반경의 가능한 범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가정관리행동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키 위한 가정관리행동의 범위와 내용, 방법들은 개개의 사회마다 상이하게 요구되고 형성된다.

따라서 가족 및 가족개개인의 생활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가정관리행동을 연구하는 가정관리학은 그 연구의 초점이 사회적환경과 시대발전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재형성, 재검토, 재발견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근대화라는 이름아래서 불과 몇 십년 동안에 급속한 기술경제의 발전을 해왔고 이런 현상은 결국 다른 사회문화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전통적·유교적 가치관과

오늘날의 민주적 평등사상, 능력주의 가치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병존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간의 심리적 갈등과 반목을 조래하고 그들의 욕구체계와 가치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경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부족으로 가정의 “목적-자원배분”의 상관관계의 불균형을 조래하였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의 형태, 크기, 기능 등에 변화를 가져왔고, 가정관리의 장소인 가정의 이동이 유동적으로 되었으며, 자원조달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날로 다양화·대량화 되어 일상적인 생활품마저도 생활경험이나 상식만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문화적·기술경제적 환경속에서 가정관리학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가정관리학이 추구해온 이상과 실제사이의 실패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가정관리학연구의 보다 발전적인 새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하여 2장에서 가정관리학의 본질과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관리학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3장에서 학문의 사회적 기여는 철저한 실증적연구의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관점 아래 대학원의 가정학석사논문의 편수를 중심으로 가정학연구중 가정관리학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양적측면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후, 주거·가정경제 및 소비자경제, 가사노동 및 자원관리의 각부분별로 대한가정학회지와 각 대학의 논문집을 중심으로 기존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가정관리학의 각 분야별 기여도 및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등을 살펴보았다.

## II.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성격

가정구성원들의 생존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기에 필요한 가치관과 인생의 의미를 찾기에 요구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생활을 통

해 개개인의 생활문화의 창조에 근본목적을 둔 가정관리는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가족 및 개인의 자기실현을 달성해가는 일련의 의사결정 활동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족이 가지는 가치·목표·욕구 및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sup>1)</sup>

따라서 가정관리학은 가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가정관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단순한 객체로써 파악하는 사회학이나 경제학등의 사회과학과는 달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주체로써 가족 개개인의 개발과 가족생활의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가정관리학은 이와같이 인간을 주체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학문으로써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가정관리학의 학문체제는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기 보다 행동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은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인 관리 자체가 복잡한 가정과 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이론과 실제의 전개를 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 환경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관리이론은 기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므로 결국 관리이론은 행동을 위한 지식체계이며 또한 혁신을 위한 이론체계이다. 따라서 관리이론은 단순히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기술이나 방법의 전개를 필요로 하므로 가정관리학은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띄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관리학은 인간을 주체로 하여 그 주체의 논리를 추구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을 위한 지식의 체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관리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가정생활 및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관리의 경험적 사실을 분석하여 새로운 관리의 법칙을 모색하며 발견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는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족 및 개개인의 행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2) 이러한 연구결과가 조속히 일반가정에 전달되고 그것이 실천의 지름길이 되어 실생활에 변화를 주어 가족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1) 첫째, 해방이후 생활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축이되어 가정학연구가 자연과학적인 인식과 방법을 가지고 가정의 물적 대상인의 ·식·주에 관한 고찰에 관심을 편중시켰기 때문이고

### Ⅲ. 가정관리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와 문제점

학문의 사회적기여를 검토하는 것은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학문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며,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 교수의 연구, 지역사회의 봉사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학의 사회적기여 내용에 대한 질과 양의 측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연구의 수량적 측정을 통하여 타 학문과의 위치, 분화된 전공의 분포등을 살펴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의 변화상황에 따르는 연구 방향으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대학원의 가정학석사논문들의 편수를 중심으로 가정학 연구중 가정관리학 연구가 차지한 비중을 양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가정관리학의 각 연구분야별로 대한가정학회지와 각 대학의 논문집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그의 기여도 및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등을 살펴보았다.

#### 1. 가정학 연구의 가정관리학 연구의 경향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가정학에서 발표된 석사논문은 총 523편이다. 그중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생활 분야가 189편으로 전체의 36.14%를, 식생활분야가 177편으로 33.84%를, 주생활분야가 26편으로 4.97%를, 가정관리 및 경제가 46편으로 8.80%를, 아동 및 가족관계가 85편으로 16.25%를 점유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의·식·인간관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분야나 인간생활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가정관리분야가 극히 저조함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인 논문제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 한국가정학 석사논문들 중심으로 한 가정학연구와 가정관리학 연구 경향

년도	분류					
	의	식	주	가정관리	아동 및 가족	계
1945-1968	6	5	1	2	·	14
1669-1970	1	5	·	2	2	10
1971	2	2	·	·	4	8
1972	17	9	·	1	6	33
1973	13	22	2	3	6	46
1974	21	15	1	4	9	50
1975	20	14	3	1	6	44
1976	20	21	5	5	6	57
1977	18	26	5	4	11	64
1978	29	22	7	14	12	84
1979	42	36	2	10	23	113
계	189	177	26	46	85	523

2) 둘째로, 가정학속에서 가정을 집, 가족, 주부 등의 관념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敝에 관한 management의 연구가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3) 셋째로,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합리화가 그저 가정이 소비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였기 때문이다.

즉 종래 우리의 가정학이 가정학의 주체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존재를 소홀히하고, 자연과학에 편중되어 연구되고 사회과학적 관점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가정의 물질적·기술적 기능이 사회이전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사회변화가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적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각 가정 및 가족구성원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조화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고 따라서 가정의 정신적·문화적 기능이 어느때보다도 강조

되며 인간생활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가정관리학의 연구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 2. 가정관리학연구의 각 부문별 사회적 여도와 문제점

### 2.1. 주거분야

가정관리학의 다양한 연구분야중 주거분야는 생활권과 환경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분야의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되었고 또 사회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자.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을 주거에 관한 관심형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는 해방과 6.25 동란으로 인하여 해외동포와 피난민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전쟁으로 가옥이 파괴되어 주택 부가가 심각히 요구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가정학자들의 학회지가 창간되고 여기에 “우리 주택의 위생학적 의미”, “앞으로의 주택생활”, “새로운 주생활의 방향”등의 주제를 가진 연구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건축학적 입장에서 기존의 지식을 소개하는데 그쳤을 뿐, 가정관리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주생활에 대한 실태 조사나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중반은 가정관리적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된 시기로 연구의 초점이 작업공간의 개량에 집중되었다. 1962년에 연구된 “부영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가사노동의 동선과 에너지의 소모관계”라는 연구를 통해 재래식 주택과 개량주택의 동선과 에너지소모를 비교하고 가사작업능률화의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생활 개선 특히 가정관리방법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와같이 주생활개선을 위한 연구는 활발히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연구로써 “한국 부영의 과학적 검토와 제시”, “부영작업대 상부면적의 적정화를 위한 연구” “가사노동 능률화를 위한 부영 설비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주거전체 생활공간과 환경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가사노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확대기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구의 계속적인 도시집중 및 핵가족화로 도시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부족률은 20%의 선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계속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택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즉 공급된 주택수에 합당한 인근 주거환경과 부대시설(학교, 공원,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택단지 형태의 주택개발과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공급형태의 주택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1975년에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1978년에 “주거선택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 1981년에 “집합주거 형태에 따른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주부의 반응조사 연구”등 주택환경과 주거선택 행동에 관한 주부의 요구를 주택계획입안자나 건축가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주택건설 참여자가 수요자의 기호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주거분야에 관한 연구가 주로 부영을 중심으로 한 동선, 에너지 절약문제와 정상인을 위한 그리고 중·상류가정, 도시편중의 주거환경과 주거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였다. 앞으로 주거분야는 신체장애자,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관리문제와 생활환경의 침해를 적극 방지할 수 있는 연구, 생활자층에서 주생활의 문제를 의식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주생활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주거분야의 연구범위가 주택자체에 한정짓지 않고 지역환경계획의 정책 즉 도시계획등 생활전반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 2.2. 가정경제 및 소비자경제분야

이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가계부를 통한 비목별 소비지출의 분석(1967)”, “가정경제에 있어서의 교육비지출(1969)”, “농가 가

제의 소비구조 분석(1970)”, “가정의 경제력이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1970)”, “전도시 노동자 가족의 소비구조 분석(1973)”, “가계관리의 실태에 관한 연구(1975) 등의 주로 가계계획, 소득 및 지출분석, 경영의 문제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변인에 대응하는 유기체로서의 가정이 가족원의 행복을 위해 가정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과정이 바로 가정관리임을 명확히하고, 도시화 공업화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경제 순환과정의 일환으로써의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각 가계의 특수성에 적합한 가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예산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가정생활안정을 위해 가족원의 협조로 소득원확보에 노력할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가계관리측면에서의 연구가 실제로 얼마나 가정생활에 반영되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1967년에 발족된 “여성 저축생활 중앙회”의 활동을 통하여 이론적 규명이 실천화되도록 교육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저축생활 중앙회”는 가정경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 여성의 저축생활 배양을 위한 운동을 목적으로 소득계층별 합리적인 가계운용지도와 가계부적기 운동, 농촌생활의 개선, 가정관리의 과학화 운동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하여 가족 및 개개인에게 직접적 가계의 문제에 부닥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소비자행동 및 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1974년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 및 소비 행동을 파악하여 소비자문제를 규명하였고, 경제지식 및 각종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행동의 행태학적 연구(1976)”에서는 소비자들이 불량상품을 고발하는데 소극적이며, 소비자의식이 부족하고 매스컴의 상품광고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어서 충동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학동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소비자 교육태도(1978)”, “청소년의 금전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1978)”들은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소비자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자교육으로 인한 소비자의 자성 및 소비자의식의 함양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소비자행동 및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문들은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 소비자를 연령별, 사회계층별,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연구한다면 소비자교육을 위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연구의 사회적 기여는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여성”과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소비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소비자의식, 상품테스트, 광고명, 법률에 대한 상식등등. 그러나 이런 잡지들의 특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활동이 전공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로는 “소비자 운동의 이론적·실제적 고찰(1975)”,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연구(1976)”, “한국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1977)”, “소비자보호의 이론과 실제(1981)” 등이 있으며, 이 논문들은 포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의의 및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동정책의 방향을 소비자입장에서 제시했다. 즉 개인 및 가계로써의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생활향상을 가져오고 결국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 지금까지의 경제문제를 소비자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의 반영으로는 소비자보호기준법(시안)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공정거래의 확보, 중요물품의 가격결정, 소비자 계몽운동 등이 포함되었고 소비자보호기관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비자문제를 행정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 들 수 있다. 또 기업측에서는 소비자문제 전담 상설기구(대기업 10, 중소기업 13)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러한 필요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가정경제 및 소비자경제분야를 연구와 사회기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이 분야의 연구는 기업 및 정부까지 포함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뿐 아니라 소비자관점에서 진정한 생산활동을 유도하도록 연구되어야 하겠다.

### 2.3. 가사노동 및 자원관리분야

이 분야에 관한 연구중 1959년부터 1981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총 13편이다. 이 들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사작업에 관한 것으로써 부엌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합리화로서 생활의 개선을 도모한 연구이다. 이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중점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우리나라 가정관리학이 학문으로써 정착하기 시작한 1960년대이다. 이 시대의 연구의 내용을 살펴 보면 “부엌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가사노동의 동선과 에너지 소모관계(1962)”에 대한 연구에서 재래식 주택에 있어서의 식사준비에서 설거지가 끝날때까지의 1일에 필요한 동선을 개량주택에서의 것과 비교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수치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생활개선, 특히 부엌과 가정관리방법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의욕을 들구어 줌과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그 내용이 일반화되어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주부의 부엌관리(1968)”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부엌관리상태를 시간의 사용방법 관리형태와 관심도로서 조사하여 부엌관리가 어떠한 상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엌관리 방법모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부엌중에 함유되어 있는 Co 가스량과 부엌구조시설 연료관리와의 관계(1970)”의 연구에서는 가옥 형태별로 부엌내 공기중의 Co 가스량의 함량과 작업방법, 부뚜막의 구조, 부엌의 구조등을 연결시켜 조사분석함으로써 Co 가스 방지법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를 주었으며 구태의연한 생활방법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며 능률적인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취사작업 능률화를 위한 연구(1975)”에서는 도시가정의 부엌작업대 수납공간 및 취사용기구에 관하여 검토해 봄으

로써 효율적인 크기의 작업대 면적과 거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의 배치를 연구하고 효율적인 취사용기구의 선택이 왜 필요한가를 규명하여 취사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가사노동 능률화를 위한 부엌설비에 관한 연구(1976)”는 한국 사람의 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가지 식단으로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써 가장 능률적인 작업면적과 작업대의 배열, 사용에 편리한 수납장의 구조, 작업대의 적당한 높이 등에 대한 연구로써 주부나 주택설계자가 부엌설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부엌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합리화가 가사노동 전반에 관한 합리화의 방향으로 연구 내용이 전환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1972)”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주부의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가사작업이 가족안에서 어떻게 분담되고 있나를 자녀교육,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관리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가정내의 가사분담의 실제와 경향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197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작업에 쓰여진 시간을 알아내고 가사노동이나 작업시간에 관련된 주택내부의 시설설비와 기구에 대한 실태 및 희망사항을 조사함으로써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1980년대에 와서는 가정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연구하는 가정관리 일반에 관한연구가 주축을 이루었다.

“일반주부와 교직을 가진 주부와의 가정관리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1975)”에서는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연구하였고 “제주도의 가족생활실태 일부에 관한 연구(1977)”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가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문화가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1980)”에서는 가정관리행동의 문화적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보편 타당성있는 가정관리행동의 이론확립을 추구하였다.

또한 1970년대 말에 일어난 세계적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위기에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의·식·주별 열에너지 소비절약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981)”를 하여 가정의 직접열에너지와 간접열에너지의 소비절약 현황을 의·식·주, 분야별로 조사하여 미래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방안과 절약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에너지위기에 극복을 가정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는 1980년 공동연구를 통하여 “취사용 연료를 중심으로 연료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 결과를 매스컴과 학술지, 잡지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기여를 하였다.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착실히 연구되고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힘을 기울여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문제들은 가정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개발과 표준기준의 평가법, 교육방법 등의 문제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가정관리학에 대한 기본원리가 체계적으로 연구됨과 동시에 이것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전개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가정관리학의 각 부문별로 그 연구결과와 사회적 기여도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서도 우리사회의 변화상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외현적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

여 가정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에 표면적으로 적응하는 생활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과 근대의 두 가치관을 적절히 선별하여 한국의 가정생활에 맞는 새로운 가치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요청된다. 전통과 근대의 조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문별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때 항상 유의할 것은 그 연구 결과가 사회의 봉사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봉사의 부진은 사회속에서의 가정관리학의 위치를 위축시키고 가정학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으며, 또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 가정학발달의 한 요인으로써 extension service program을 통한 지역사회의 봉사, 즉 지역사회에 정보제공과 성인교육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참고삼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종류의 사회적 봉사기관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장명옥,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1 p.44
- 2) 대한가정학회지 1959—1981 까지
- 3) 가정학 석사논문 1945—1979 까지
- 4) 장명옥, 가정학원론, 교문사, 1981
- 5) 이기춘, 가정경제학, 교문사, 1977
- 6) 이인희, 가정경영과 관리, 수학사, 1967



# 아동학의 사회적 기여

—아동학을 중심으로—

## The Contribution of Child Development to Society

국민대학교

교수 우 영 희

*Kookmin University*

Prof.; **Young Hee Wooh**

### <目 次>

- |                     |              |
|---------------------|--------------|
| I. 서 론              | 1. 연구부면      |
| 1. 연구의 목적           | 2. 교육부면      |
| 2. 연구의 내용           | 3. 사회적 봉사부면  |
| II. 아동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 III. 결론 및 제의 |

###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hild development as a branch of home economics has contributed to social development in this country. The examination is made in three fields: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Firstly, reviewing the field of research, the concept of child development has varied with the change of view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as a part of home economics should be studied in connection with family relations. This i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child development and other sciences. In the past the study of child development focused on intellectual ability of child but recently has shifted to overall analysis of mutual relations in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s.

Second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mphasis of it also changed from techniques related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human factors, resulting in specialization of child development from other part of home economics. Graduates of child develop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hirdly, in the social services aspect, the number of "children's homes" increased from 29,906 in 1970 to 45,075 in 1980. Over 230 "cooperative day-care-cen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ere built in 1981 and many centers such as those in 1981 will be established in 1982. As a result, there is a great need of qualified teachers for day-care-centers. In order to meet the social needs, those who are engaged in child development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field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and so o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results of the study, I want to make some proposals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urse of study linking itself to society in

order to connect the direction of child development with social aspects other than the fields of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the sake of the training and quality improvement of teachers of day-care-center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is inevitable. Also teachers' certificates should be conferred on graduates of home economics and home administration departments who finish the prescribed course. To accomplish this, the remunerations for those engaged in infant education should be adjusted properly participation by child development specialists in applied home economics, social welfare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actively promoted.

## I. 서론

### 1. 연구목적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사명이란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또한 지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란 과학을 하는 곳이므로 그 학문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사회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빨리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교육·연구부문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이론과학에서 얻어진 결과를 실천과학에 보내고 그것을 적용해 봄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론 과학에서 해결해주는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내용중 가정학영역에 있어서 아동학의 분야가 갖는 중요성은 근래의 가정학 연구추세로 보아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정학의 대상을 가정이라는 현상중에서도 주로 의·식 주 등의 자연과학에 편중된,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적인면에 치중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과학적 연구로서 자연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의생활관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인간관리, 금전관리 등 각 부분별로 분할되고 더욱 세분화되어 각 방면에 많은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연구가 가정학과 연관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개별화된 연구로 끝나 버려 인간생활 어디에 관련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구들은 기존의 인접 과학에 깊숙히 침투하여 그부면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가정학문 자체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와같은 현상을 우려한 미국의 가정학자들은 가정학이란 여러 과학들을 이어

주는 Missing Link 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바 있다. 그후 그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세분화된 각분야에서 얻어진 방대한 연구를 Missing 하지 않게 인간사회에 재 회수하고 환원하고 그것끼리의 관련된 입장에서의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되어 통합적 접근방법인 생태학적인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즉, 아동의 가까운 환경으로서 인적요소인 가족과, 물질적 요소인 의·식·주와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이 영유되는지, 또 넓은 환경인 자연·사회·문화적조건과는 어떤 관련을 지워가고 있는가하는 아동을 둘러싼 주변에 대한 연구,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방향인 인간생태학적인 입장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급기야 집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1901년 제창된 Home Economics 라는 과명칭을 버리고 1960년 후반내지 1970년 초반부터 Human Ecology, Human Development, Family Resource 등 과의 명칭을 인간에게 촛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정학 부문에서 인간관리 분야가 갖는 중요성 및 사명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인간의 출발점인 아동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연구 분야는 모든 학문연구의 핵적인 요소라 하겠다.

그동안 가정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독자성은 무엇인가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그와같은 본질에 직접 도전하기 보다는 '가정학이 그간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봄으로서 이것을 Link 시켜 놓은 것이 가정학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연구의 근본취지는 가정학에서 아동학분야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모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대학의 3대기능인 교육·연구·사회적봉사의 3가지 방면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업적 및 평가를

- 아동학의 개념
- 아동학의 연구추세

교육의 업적 및 평가를

- 가정학에 있어서 아동학 분야의 위치
- 졸업생 취업현황

사회적 봉사의 업적 및 평가를

- 가정학의 사회적 전개
- 사회봉사 부면

이상과 같이 분류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II. 아동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 1. 연구 부면

#### ① 아동학의 개념

아동관의 역하는 아동학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다. 그동안 많은 변천을 거쳐 오늘날에는 아동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이란 아동의 행복을 위한 과학이다. 아동의 행복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져서 않고, 아동과 관련된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을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할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학적 성격을 내포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대학에서의 아동학은 인간관계적이어야 하며 인간관계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 A. 아동의 외부환경과 독립해서 이뤄지는 자연적인 성장경향의 연구, 즉 성숙의 요인
- B. 아동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변화해 가는 행동발달의 연구, 즉 환경요인
- C.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아동학의 연구추세

아동학에 관해서는 성숙과 학습의 양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해결된 문제들이 많아서 아동발달의 과학적 기초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기초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추세를 보면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교육실천적 입장에 분열이 일기시작하면서 아동학의 연구추세도 다양화하였다. 그 하나는 일상 생활경험을 대상으로 하여 전인적 교육실천을 주장하는 관념주의 학파와 그와는 달리 지적능력개발을 주장하는 경험주의 학파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인 연구부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양상은 단순히 개념발달을 돕는 프로 그램을 주장하는 인지학파와, 구체적인 경험과 교육 프로 그램을 주장하는 행동주의 학파와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지적능력이란 다른 것들과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발달·정서 발달·사회성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능력을 강하게 주장하는 행동주의 학파의 이론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주의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무능한 존재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인의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이었으며, 남녀는 유별하다는 이성관으로 하여 여성들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이란 생각할 수 없었던 개화기 이전의 관념에서 오늘날과 같은 아동관, 아동학의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꾸준한 가정학자들의 연구가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1959년 창간호부터 금년까지의 가정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해 보면, 발표된 논문들의 제목·형식·연구방법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70년이전의 논문제목들은 포괄적이며 서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70년 초반부터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등 보다 구체적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학령기를 맞은 어린이의 생활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을 보면 여러각도에서의 실험연구로 취

학연령의 단축을 계의함으로서, 근래의 논문중에는 아동교육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연구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부면

### ① 가정학에 있어서의 아동학의 위치

가정학의 체계는 대체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인간관리, 금전관리등으로 분할된다. 즉, 가정관리란 주생활·인간관리·금전관리를 통합한 학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의·식등의 학문에 비해 1/3에 해당하는 비율일 수밖에 없으므로 배출된 학생수·논문수에서도 같은 현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정과, 가정교육과일 경우에는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근래의 가정학의 연구추세가 인간을 중심으로, 가까운 환경으로는 인적요소인 가족과 물질적 요소인 의·식·주와는 어떤 관련을 맺는지, 넓은 환경인 문화·자연, 사회환경과는 어떤 관련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인간의 이해와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가 대두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1972년 숙대가 1973년 연대가 각각 가정대학내에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처음으로 독립된 학과로서 분과되었다.

이같은 학과가 독립되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학자들의 10여년에 가까운 집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조직속에서 체계의 개편이란 그것이 갖는 정당성·절대성이 없이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기타 대학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② 졸업생 취업현황

가정학과 혹은 가정관리학과의 많은 졸업생중 많은 아동학 전공자들이 훌륭한 어머니, 교직, 연구직, 사회복지 부면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이 분과되어 있는 두대학의 경우만을 다루었음을 전제로 한다.

졸업생 283명중 114명 즉 50.8%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69%가 자기의 전공을 살리고 있었다. 아동복지학과 졸업생은 복지기관 또는 어린이집에 22%인 32명이 진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아동학과 졸업생은 대학원 진학

이 23%에 해당하는 14명이 진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20%로서 유아원 교사의 순위로 되어있었다. 그외에 중·고등학교 교사, 일반회사, 농촌진흥청, 은행등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졸업생들은 전임강사, 유학, 시간강사등의 순위로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고급인력자원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낮은 봉급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높은 진출율을 보인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3. 사회적 봉사부면

### ① 가정학의 사회적 전개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회 구조의 기본단위인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율의 상승, 핵가족의 보편화등과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시설탁아의 필요를 느껴 보사부소관인 어린이집이 1970년에 29,906개였던 것이 1980년에 45,075개로 증가하였으며, 내무부소관인 어린이 협동유아원이 1981년 230개가 설립되었으며 내년에도 급년도 만큼의 유아원이 건립될 예정이라 한다. 이같은 경향은 가정학이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그것과 긴밀한 사회현상에 연장하여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라고 전제할 때 이것은 사회현상에 연관된 응용가정학의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비단 어린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의 연장, 산아제한등으로 생겨나는 노인문제, 주부들의 재교육등 가정학의 사회적 전개의, 필연성은 사회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응용 가정학 분야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④ 사회 봉사 부면

미국의 가정학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실용주의 철학을 밑바탕으로 하여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한 것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학자들도 우선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제자들을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봉사하고 있으며, 그위에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화를 강조한 학자들도 많다. 아동학과의 분과를 위해 힘쓰고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어린이 교육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오늘날과 같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학자도 계시며, 어린이 복지기관인 어린이집협회 회장으로 한국의 어린이 복지단체의 확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보사부 아동국장으로서 활약하셨고, 계속 행정부에서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 복지에 힘쓰고 있는 학자도 계시다. 또한 숙대와 연대에 어린이 유아원이 있어 많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교육의 효율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1979년 12월 아동학자들만의 모임인 아동학회가 발족되어 학술발표회, 학회지 발간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Ⅲ. 결론 및 제의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아동학 분야가 사회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나, 앞으로 더욱 더 연구가 사회봉사에 연결되어 아동학 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활발히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 1. 연구 부문

##### ① 아동학의 체계 제시

발달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가족관계분야, 특수아 분야.

그간 발달 및 교육분야에 치중하였던 방향을 사회적 전개를 위하여 복지 분야 가족관계 분야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 하나의 시안으로서 위와 같이 제시해 본다.

##### ② 공동연구

가정학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각 분야끼리의 상호관련을 모색하는 분야간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교육 부문

##### ① 분과의 필요성

학문의 성격으로 보나, 가정학의 연구추세로 보아, 분과되지 않고 3과가 통합되어져서는 연구되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과가 분과

될 것을 제의한다.

##### ② 부모교육 과목의 강화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며 인성형성의 바탕이 된다. 그 교육의 전담자는 부모라는 점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③ 자격증 부여

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모두 가능하나,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졸업생들은 어린이집 교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다. 기타 가정관리학과 가정과 졸업생에게도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봉사부면

##### ① 아동복지·가족복지 단체의 질적충실

수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충실한 일꾼의 양성이 필요하다.

##### ② 행정부서 참여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와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③ 응용 가정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자세

가정학을 응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 부면에서의 전개가 필요하다. (연구원, 가족복지 요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매스컴, 어린이상담원, 가족상담원 등)

##### ④ 유아교육 종사자의 보수의 현실화

교육 대상이 어려워질수록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봉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가서 의의를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봉급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대한가정학회지, 1959~1981
2. 이정덕, 아동학, 수학사, 1976
3. 주정일, 아동복지학, 교문사, 1980
4. お茶の水대학, 가정학강좌, 아동발달학, 광생관, 1979
5. お茶の水대학, 가정학강좌, 아동발달교육학, 광생관, 1979

# 家政教育分野의 教育的 社會的 寄與에 관한 考察

A Study of Educational and Social Contribution of Home Economics

高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副 教 授 成 和 慶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Hwa Kyoung Seong

## <目 次>

- |                    |               |
|--------------------|---------------|
| I. 序 論             | V. 家政教育分野의 課題 |
| II. 女性教育으로서 家政教育   | 1. 教育內容面에서    |
| III. 生活教育으로서의 家政教育 | 2. 教育施設面에서    |
| IV. 教育課程 變遷과 그 背景  | 3. 教師의 資質面에서  |
| 1. 第1次 教育課程 制度     | VI. 要約 및 提言   |
| 2. 第2次 教育課程 改定     | 참고문헌          |
| 3. 第3次 教育課程 改定     |               |

## I. 序 論

家政教育分野는 家政學 全般을 教育에 適用시키는 方法論的인 것이어서 자칫 專攻이 뚜렷치 못한 것처럼 認識되기 쉽고 실제로 家政學의 여러 分野中 現在 가장 獨自의인 理論體系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 分野를 獨立된 研究對象으로 삼아 一貫되게 學問的 體系를 잡아온 學者도 드문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家政學은 우리나라 女性教育을 制度化, 近代化시킨 母胎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家政教育分野는 女性指導者養成과 同一視되는 次元에서 먼저 出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家政學 內에서 家政教育分野가 支配의 있었으므로 家政學과 家政教育分野가 混同狀態인 點도 전혀 否認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理由때문에 家政教育分野의 獨自의 領域을 設定한 然後에 論題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

家政學은 家族의 幸福增進과 人類의 福祉增進을 一般의 目的으로하고 家政生活의 向上을 爲해서 家

族의 健康, 人間育成, 物質的 經濟生活의 安定, 家庭生活技術의 向上, 地域社會, 口家, 人類에의 貢獻에 대한 研究이다. 특히 家庭生活은 社會와 密接한 關係에 놓여있으므로 家庭生活 向上의 方向을 社會의 變遷에 따라 그 環境과의 相互作用 即 거기에 適用되는 方向으로 研究하여야 한다<sup>1)</sup>고 할 수 있어서 家政教育을 廣義로 생각할 때 “家政學 內容을 通한 教育”으로 看做되어 요즘 많이 論議되는 平生教育, 社會教育도 包含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小考에서는 狹義로 大學의 家政教育科와의 連結線上에서 制限하여 “初·中·高等學校에서 家政科 教育을 通한 社會에의 寄與度”로 定해보려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家政學內容과 性格의 聯關 있는 科目을 法습에 의해서 女學生에게 가르치기 始作한 것은 1895年 小學校에서이며 中等教育으로는 1908年 부터 本格化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그후 1933年 梨花專門에서 첫 家事科卒業生 18명이 輩出되므로<sup>3)</sup> 家政學을 專攻한 女性指導者가 國內에서 最初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분들 중에서 2명이 教師로 就職을 해서 家事科目을 擔當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家政學 專政者가 擔當한 “家政教育 50年”이란 表現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半世紀동안 家政이 教科目으로 定해져 初·中·高等學校에서 定規教育課程으로 教育되면서 그 教育效果는 學生 自身에게 물론 그 學生을 通해 家族과 社會에 미친 波及效果는 再論의 餘地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家政教育 分野의 研究方向이, 家政教育의 史的 考察, 教育課程 研究, 教科書 改善에 관한 研究, 그리고 校服에 관한 研究 等に 그치고 있다.

그래서 急變하는 社會變化和 研究環境에 비추어 그 동안의 教育內容과 方法 그리고 그 效果가 어찌 했나를 再照明하므로써 家政教育 分野의 位置를 定立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項目들을 設定해 論해 보려 한다.

- 女性教育으로서의 家政教育
- 生活教育으로서의 家政教育
- 教育課程 變遷과 그 背景
- 十 家政教育 分野의 課題

## Ⅱ. 女性教育으로서의 家政教育

儒敎의 엄격한 倫理觀 속에서 男性本位의 社會 規範과 慣習, 道德律로 因하여 社會參與는 물론 教育의 機會도 주어지지 않았었고 一部 兩班階級의 婦女子에게는 女四書를 根源으로 家庭에서 傳授되어 내려오던 家事訓育式 敎者이 있었다.<sup>4)</sup>

그러나 1890年代 開花期를 맞이하여 女性의 地位나 教育에 관한 問題에도 눈이 뜨기 始作하였는데 이 時期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寄與로 女性教育의 近代化가 發芽되기 始作했다. 그 內容은 禮節, 裁縫, 手藝, 染色, 機織 등이어서 과거의 教育內容과 相通하는 것이었다.

그후 1895年 公布된 小學會에 依해서도 手藝, 手工을 教科로 두었으며 1941年 國民學校로 改稱後에도 裁縫, 家事가 教育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中等教育에서도 마찬가지로서 女性教育은 家庭生活 全般에 관한 教育 即 裁縫, 刺繡, 家事, 料理, 編物, 育兒, 家庭管理 等を 擇하

고 다른 科目보다 比重을 크게 두어 15~25%가 家政系列科目의 時間이었다.<sup>4)</sup>

이는 專門教育에서도 例外가 아니어서 梨花學堂에서도 家事科가 設立되었으며 寄宿舍生活을 家庭管理 및 生活教育의 實習場으로 活用하여 모든 學生에서 教育을 했다.<sup>5)</sup>

이와 같이 家政科教育은 女性의 特殊性을 살리기 위한 教育으로 始作되어 많은 女性을 教育했고 家庭生活과 연건된 知識 및 技能의 習得으로 우리나라 家庭生活의 科學化, 合理化 等を 實現하여 向上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는 家庭이나 社會에서 女性이 家政學을 專攻으로 擇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認識했고 勸獎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結果 女性教育을 制度化, 近代化하는 橋樑役割을 했으며 따라서 先驅의인 女性, 指導者의인 女性은 거의 모두 家政學을 通해서 輩出된 것이다.

이 분들은 大部分이 教育界 等 社會參與로 女性問題, 女性教育問題, 家庭問題 等を 擔當해 왔다. 이런 問題들은 항상 대두되는 것이며 研究하고 改善해야 할 內容들 이므로 家政教育은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 Ⅲ. 生活教育으로서의 家政教育

家政科目 教育은 家庭生活에 관한 學習을 通하여 家庭과 社會의 成員으로서 바람직한 資質을 기르는 教科이다.<sup>6)</sup>

이에 根據를 두고 中等學校 家政科 教育의 特性을 보면 家庭生活, 職業生活에 必要한 基礎의인 知識이나 技術을 習得시켜 社會變화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며, 家庭生活에 必要한 衣·食·住·家族·育兒 등에 관한 知識을 習得하여 家族의 一員으로서 生活 할 수 있는 教育의 役割을 擔當해왔고 또한 家庭經濟를 通하여 올바른 消費生活도 教育하였다.

이외에 技術이나 技能을 익혀 家庭生活에 活用할 뿐 아니라 産業生産의인 機能으로 伸長시키도록 誘導하는 教育課程을 編成해 왔다.

그 結果 家政科 教育은 家庭生活 即 人間과 物質을 調和시켜 實踐하므로써 生活을 向上 發展시

키도록 努力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英國, 美國, 日本 등도 生活에 關連된 內容을 教育하여 보다 向上된 生活을 必要로 하는데서 始作되므로 家事技能的인 面이 主된 教育內容이었지만 科學의 發達, 學問의 進展에 따라서 家政科도 學問의 理論을 體系化하면서 實習을 強調해 왔다.

現實的으로는 實習器材나 施設不足으로 完全한 教育이 되지 못한 點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教育與件의 問題인 것이다. 오히려 家庭生活에서 비롯되는 것이라해서 女性에게 局限하기 보다는 工業社會化, 核家族化, 都市集中化 現象 등으로 因하여 家庭生活에 男性의 理解를 더욱 必要로 하게 되었으므로<sup>5</sup> 男·女 共通으로 履修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IV. 教育課程 變遷과 그 背景

中·高等學校 教育課程은 1955年 制定된 以後 10年 間격으로 改定되 왔는데 中等學校 教育課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社會·經濟的 變化, 技術·科學의 發達, 國家·政策의 變化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이런 觀點에서 家政科 教育課程 變遷의 各各의 特徵을 살펴서 그 時代의 背景을 追跡하므로써 家政教育分野의 教育的, 社會的 役割을 論해보려 한다.

##### 1. 第一次 教育課程 制定

1955年 教育課程 制定에서의 特徵을 보면 一人一技教育과 技術教育 등 職業教育이 強調되었다. 實業·家政에 속하여 中學校 適當 5時間, 高等學校 3時間씩 必須的인 科目이었다.<sup>7</sup> 이것은 敎科中心教育에서 生活中心教育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간단한 調理, 바느질, 育兒, 經濟, 家族關係 등은 國民學校에서 男學生에게도 學習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國民으로서 日常生活에 필요한 知識과 技能을 익히게 하여 生活을 向上시키고 適性에 맞는 職業을 探索할 機會를 附與하기 위한 教育을 家政이 擔當한 것이다.

##### 2. 第二次 教育課程 改定

1963年 實業·家政科의 教育課程의 骨子は 自

主性, 生產性, 有用性, 合理性을 強調하였는데<sup>11</sup> 이것은 國民生活의 質的인 向上과 從前에 消費生活의 合理化에 重點을 두었던 家政學이 生產的 技術教育으로 方向을 轉換하므로써 積極적인 態度로 입하여 國家가 當面한 經濟的 成長에 貢獻할 수 있도록 對備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60年代 國家, 社會가 要求하는 自立할 수 있고 實踐的인 社會人을 育成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본다.

1969年 部分 改編 때는 “產業과 職業”單元을 添加하여 加一層 強調하였다.

##### 3. 第三次 教育課程 改定

1974年 改定에는 1968年 宣布된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을 基本으로 삼고 國民的 資質涵養과 人間教育의 強化, 知識, 技術教育의 刷新으로 生活의 科學化, 現代女性의 資質涵養에 力點을 두었다.<sup>12</sup> 이때 새로 添加된 單元을 例로 들어보면

○ 食生活의 現代化 單元에 우리나라 食량사정, 食習慣, 食事形式의 改善, 食品生產 및 유통과정, 加工食品 利用 등이 包含되어 食糧節約과 混粉食을 理解하고 實踐하여 食糧自給을 이룰수 있도록 하였다.

○ 옷과 옷감 사들이기 單元에 우리나라의 옷감사정, 옷과 생활과의 관계, 纖維製品의 品質表示, 기성복 고르기 등으로 生活의 科學化 實現과 70年代 社會變化를 깊이 反映하였다.

○ 가정기계와 전기 單元에서는 科學文明을 生活에 利用하는데 쉽게 適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母子保健, 家族計劃 등을 導入해서 人口問題나 家族問題를 學習하므로 生活의 質的인 向上을 도모하며 女性의 社會參與 意識形成에 努力하였다.

以上과 같이 家政敎科의 教育課程은 社會나 國家 그리고 學問的인 變化와 要請에 流動的으로 대처하여 教育的 任務를 遂行해 온 것이다.

#### V. 家政教育分野의 課題

家政科目은 家庭生活의 改善과 現代化를 이루기 위한 女性教育의 必要性에 의해서 出發되었다. 그



래서 初期에는 外來 文物을 받아 들이는 先驅的 役割을 했으며 그것을 우리 文化에 適用시키려 努力도 했다. 뿐만 아니라 家庭의 運用을 民主的으로 이끌고 女性의 地位를 向上시키는 한편 衣·食·住生活를 均衡잡히게 하는데 實質的으로 큰 役割을 해왔다고 본다.

1980年 文教年鑑 統計에 依하면 國民學校 4,5,6學年 4,125,904명이 實科를 中學校 女學生 1,161,351명, 高等學校 女學生 400,316명이라는 많은 數의 學生들이 家政을 教科目으로 學習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實績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家政의 教育內容, 教育施設 그리고 教師의 資質 등을 檢討하여 發展을 爲한 提言으로 삼고자 한다.

### 1. 教育內容面에서

家政學은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 藝術에까지 걸쳐 많은 基礎學問을 바탕으로 하며 그 特徵은 綜合力에 있다고 하겠다.<sup>7)</sup> 따라서 教育課程을 보면 中學校는 食生活, 衣生活, 住宅, 家庭機械와 電氣, 育兒保健, 家庭원예, 手工藝, 家庭管理이며 高等學校는 家庭經營, 食生活, 衣生活, 住生活, 家庭經濟, 家族關係, 育兒로 아주 廣範圍하게 編成되어 있다.

柳喜卿<sup>8)</sup>은 現代의 家政學은 家政生活의 기술이나 管理만을 對象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家庭生活의 要素로서 家族關係, 人間의 精神, 身體의 成長發達, 生活資源의 利用, 生活環境의 調整등을 包含해야 한다고 했으며 研究對象은 家庭에 局限하려던 좁은 視野를 脫皮하고 人間과 環境이라는 넓은 範疇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라고 提言하였다.

그러나 現在 教科의 內容은 너무 包括的인 面이 있고 中國, 日本과 比較해도 가장 광범위한 內容을 取扱하고 있어서<sup>9)</sup> 자칫 核心이 흐려진 教科로 評價될 可能性이 있다. 특히 中學校의 育兒單元은 學生들의 發達程度와 동떨어진 感이 있으며 한편 學問의 추세나 社會의 要求가 人間的인 面을 強調하고 있는데 비추어 家庭의 人的 要素를 取扱하는 單元이 가볍게 되어있다.

### 2. 教育施設面에서

家政學이 實踐, 生活, 應凡科學임을 前提로 할 때 理論的인 知識만 가지고 있는 教育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없다.

實業·家政에 包含된 科目으로서 實驗·實習이 教科內容에 編成되어 있고, 教育目標을 產業社會에 대처하는 職業人 또는 職業의 탐색으로 設定하고 있으므로 實驗·實習施設은 家政教育을 目的으로 達成시키는데 必須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中·高等學校의 施設, 設備은 不備된 實情이며 또 施設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學級規模가 너무 크고, 教師의 業務量 過多, 實習費 不足 등의 原因으로 해서 活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學問의 發達과 社會의 變化에 비추어 學校의 施設이나 教育與件이 미치지 못하면 理論的인 水準과 實踐하는 行動의 程度와의 差異에서 오는 간격은 生活의 不均衡을 招來하리라 본다.

近來 入試위주 교육이라는 教育의 큰 問題點을 안고 있는 이 時點에서 實踐할 수 있는 生活教育이 되게하는 것은 家政의 內實을 기하며 現代의 國民의 資質을 키울 수 있는 要因인 것이다.

### 3. 教師의 資質面에서

家政教師는 調和된 人格者로서 學生과 地域社會를 理解하고, 우리 文化와 家庭을 사랑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sup>10)</sup> 또 庭政學 全般에 걸쳐 充分한 學識을 갖추어야 하며 教育學에도 깊은 知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條件을 갖춘 사람은 한편 생각하면 天性的으로 教師의 適性을 타고나야 하며 아울러 敎職을 스스로 能動的으로 選擇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教師는 制限된 活動 時空 안에서 每日 어린 學生과 生活한다는 것이 實狀 어떤 地位에 대한 야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며, 物質的인 慾望을 채우는 사치스러움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學生이나 社會로부터 받는 期待感 때문에 緊張의 連續인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職業으로 擇한 敎師職은 本人의 苦衷은 물론 學生과 社會에 큰 過誤가 되는 것이

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教師의 使命感을 높이고 專門性을 附與하기 위해서 師範系 卒業生에게만 教師資格을 認定해야 마땅하다.

一般系列의 卒業生인 경우 一次的으로는 다른 職種을 講究하다가 如意치 못할 때 다음 順으로 敎職을 擇하게 되는 경향이므로 하나의 단순한 職業에 머무르는 것이다.

醫大를 卒業하면 醫師요, 法大를 나오면 法官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師大를 나와야만 敎師가 될 수 있을 때 不可侵의 專門性과 尊嚴性이 이룩되며 敎權이 確立되리라 確信한다.

## VI. 要約 및 提言

家政教育分野는 中·高等學校에서 家政科目을 擔當하는 教師의 輩出을 主目的으로 해 왔다.

이들 敎師들은 家政科目을 通하여 家政學 各分野의 研究結果를 非專攻者에게 傳達하여 適用시키므로써 學生은 물론 그 學生의 家庭과 社會에 많은 影響을 미쳐왔음은 再論의 餘지가 없다.

그러나 家政教育分野는 家政學 여러 分野 中에서 가장 먼저 出發되었고 또 家政學 全般을 敎育하는 特性 때문에 現在는 자칫 뚜렷한 獨自性이 흐려져 있는 느낌마저 드는데 家政學이 應用, 實踐 生活科學이라는 立場에서 볼 때 學問을 國民生活에 연결시켜 家庭生活을 向上시키고 國民의 資質을 涵養하며 人間과 環境과의 問題 즉 家庭이나 社會에서 發生되는 모든 問題 解決을 위한 學問的 寄與 可能性으로는 그 獨自性和 重要性은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家政教育分野의 現在까지의 敎育的, 社會的 役割을 整理해 보고자 女性敎育으로서의 家政學, 生活敎育으로서의 家政學, 敎育課程 變遷과 그 背景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方向 摸索을 위해서 家政教育分野의 課題을 論해보려 한다.

開花期에 過去 家內 口傳式 女性敎育과 內容이 유사하기 때문에 女性敎育으로 쉽게 받아 들여져서 女性敎育을 近代化, 制度化하는데 主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大部分의 女性 指導者들이 家政學 專攻者이었다. 따라서 女性敎育에 先驅的 役割을 했

으며 敎育이 普遍化되면서 家政은 定規敎科目으로 定해져서 家庭生活에 必要한 內容을 敎育하여 家庭生活의 合理化 科學化를 도모했다.

또한 學問의 發達과 社會의 變化 등에 影響을 받아서 時代가 要請하는 敎育課程을 編成했는데

1955년에는 一人一技敎育과 技術敎育等 職業敎育을 強調하여 國家의 再建을 뒷받침 했다.

1963년에는 從前 消費生活의 合理化에 重點을 두었던 方向을 바꾸어 生産的 技術敎育으로 轉換하므로써 經濟成長에 貢獻하도록 對備하였다.

1974年 改定에서는 國民的 資質 涵養과 人間敎育의 強化, 그리고 知識, 技術敎育의 刷新에 力點을 두어 國家的인 次元에서 生産, 資源, 人口, 經濟 등에 관한 意識과 問題解決을 위한 敎育을 內容에 添加하였다.

이렇게 家政教育分野는 家庭, 社會, 國家的인 次元에서 現在까지 많은 敎育的 任務을 遂行해 왔으나 急變하는 社會와 科學文明 그리고 이에 影響받는 家庭에 대한 概念의 變化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의 提言을 하는 바이다.

1. 家庭은 男·女 共同의 生活場이며 現代의 社會의 特徵은 男·女 役割의 區分이 뚜렷치 않은 趨勢이므로 家政科目도 生活敎育으로서, 國民的 資質 涵養 敎育으로서 男·女學生 모두에게 共通 必須科目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最近 學校敎育이 知識 傳達에 치우치고 있다는 批判과 함께 精神的인 心性敎育이 強調되고 있어서 敎師의 使命感과 專門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師範系 出身에게만 教師資格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3. 家政科目은 그 性格으로 보아 반드시 實驗·實習을 並行해야 하므로 施設 및 器材를 擴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1. 玄己順外, 家政科敎育, 서울, 한국능력개발사, 1975.
2. 鄭德姬, 韓國의 家政科敎育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교육대학 논문집, Vol.12.
3. 梨花家政學 50年史 편찬위원회, 梨花 가정학 50年,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79.

4. 李泰賢, 家政學原論, 高大 출판부, 1976.
5. 洪文子, 韓國·中國·日本의 中等家政科 敎育課程의 比較,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6. 李玉任, 家政科 敎授法, 서울, 修學社, 1977.
7. 柳喜卿外. 家政學의 檢討와 未來의 方向提示를 위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Vol.13, No.2.

# 분과별 학술 발표

## 가정관리 분야

### 1) 아파트 外部空間에 대한 主婦의 關心도와 滿足度 調査研究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과

지도교수 지 순  
발표자 김 은 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초 이래 국가경제가 산업화정책으로 일관되어오면서 집합주거로서의 아파트가 급격히 발달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도시 주거환경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아파트가 도시의 새로운 주거형으로 정착하여 감에 따라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양식에서 익혀진 고유의 주거습관이 새로운 주거환경에서의 적응문제가 대두되며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질적인 주거를 이루려는 아파트가 현실적인 사회여건으로 패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택지의 절대부족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는데만 급급하여 패적한 생활을 위한 충분한 외부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잦은 이동성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감소시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파트주거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연구는 주로 내부공간에 치우쳐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의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바탕이 되는 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에서 공동의 외부공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아파트 주거생활에서 공동의 외부공간이 주부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그 환경문제를 파악하여 아파트 주거생활의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1)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도 조사. 2) 아파트 외부공간의 구성에 따른 주부들의 만족도 조사. 3) 아파트 외부

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기본으로하여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chi^2$ , F-test, 상관관계(r)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아파트 외부공간의 네가지 유형(고층평행형, 고층직각형, 저층평행형, 저층직각형) 별로 총 255세대의 주부들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영역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 외부공간도 중요한 주거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관리의식은 영역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서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2) 아파트 외부와 실내생활 환경에 대한 주부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환경인자 중에서 어린이놀이공간, 녹지공간, 자건거 보관소, 소음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반응이었다.

3)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도와 만족도는 물리적인 환경요인인 외부공간의 유형과 거주층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주거공간으로서 아파트 외부공간의 구성에 대한 연구와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아파트가 질적인 주거환경이 되는 바탕이 되어야겠다.

### 2) 아파트 주거자의 열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

— 난방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과

지도교수 윤 복 자  
홍 영 기

세계가 에너지문제를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특히 1973년과 1979년에 있었던 석유의 커다란 가격변동은 석유 수입국에 악영향을 주었고, 법세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를 의식하고 각국이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제한된 자원의 고갈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 할수 있다. 가정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사회, 교육, 경제단위의 중심이고, 에너지 보존에서도 기본적 사결정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에너지 보존은 가정에서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특히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구성으로 증가된 도시가정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주거양식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효율적인 열관리의 필요성은 가정 열관리 분야에서 빠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이므로 세대수가 밀집·수용되어 열관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집중적인 열관리의 가능한 요인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주거자의 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에너지 고갈문제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열관리협회에서 연구된 자료와 아파트 주거자의 열관리행동과를 연결하여, 주거자의 자발적인 열관리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관리 행동요인을 관리성 경제성, 문제의식성으로 국한하여 아파트 주거자의 인구학적 환경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요인과 주거자의 쾌적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배경과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있는 유류를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난방 고층 아파트로 인구학적 환경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이 모두 다른 세단지를 선정하여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357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완전한 것과 성의없는 것을 제외하고 223부가 사용되었다. 표집

대상은 가정에서 실제생활을 경험하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연구 내용별로  $X^2$ (Chi-square), T-test와 F-test(변량분석)과 상관관계(Correlation)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환경요인중 가정생활 주기로 물리적 환경요인중 난방미터기로 나타났다.

둘째, 쾌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요인중 세대위치와 아파트 형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열관리 행동요인사이의 관련성은 관리성과 경제성, 경제성과 문제의식성은 서로 관련있는 것으로, 관리성과 문제의식성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과 행동을 연결하여 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農村消費者的 購買意思決定 合理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尹 貞 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및 사회구조적 변동을 겪었으며, 아울러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연구는 농촌사회의 변동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지역, 직업)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라남도지방 4개농촌(화순, 해남, 나주, 벌교)의 주부 201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2단계로 나누어 구매 의사결정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chi^2$ 검증을, 합리성지수에 대해서는 dummy variable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다변수회귀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소비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의 합리성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

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농촌주부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지므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상업농지역은 전통농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당히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유행과 같은 타인지향적 소비가치관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합리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소비자교육은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농촌주부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보며, 농촌의 소득증대가 궁극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되도록 하려면, 농촌주부들이 진정한 소비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동일한 농업 형태이면서도 개발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합리성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명변수로서 소비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측면과 함께 생태학·심리학·인류학적 측면을 통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본연구는 전라남도지방의 특정농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농촌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합리성척도의 구성에 있어서도 부족된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

## 아동 및 가족관계 분야

### 1) 취학전 아동의 성 역할 식별 및 선호 발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김 경 미

####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성인의 행동양식 및 성격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아동의 성 역할 식별 및 선호 발달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인격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환경조성이나 취학전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설정되었다.

- 1) 성 역할 식별에 관해서 피험자의 연령(3, 4, 5세)과 성별 및 실험자의 성별에 따른 발달의 경향과 차이를 알아 본다.
- 2) 성 역할 선호에 관해서 피험자의 연령·성별 및 실험자의 성별에 따른 발달의 경향과 차이를 알아본다.
- 3) 피험자의 성 역할 식별 수준과 성 역할 선호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피험자는 3, 4, 5세의 취학전 아동으로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190명의 아동들이었다.

피험자의 성 역할 식별 및 선호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Edelbrock와 Sugawara(1978)가 3세부터 8세까지용으로 고안한 성 역할 학습 지표(Sex Role Learning Index; SERLI)를 번역·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피험자의 연령 및 성별, 실험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삼원 변량분석을 했으며, 성 역할 식별 수준과 성 역할 선호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적률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고, 유의도는  $t$ 검증을 하였다.

#### 4. 연구의 결과

##### 1) 성 역할 식별

3, 4, 5세 아동의 성 역할 식별의 발달수준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P < .01$ ), 3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4세 및 5세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성 역할을 식별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P < .01$ ). 그리고, 동성의 실험자에 의해 조사된 아동들 보다 이성의 실험자에 의해 조사된 아동들의 이성의 성 역할을 식별하는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P < .05$ ).

##### 2) 성 역할 선호

3, 4, 5세 아동의 성 역할 선호의 발달 수준은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 $P < .01$ ), 3세 및 4세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5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성에 적합한 활동을 더 선택하였다 ( $P < .01$ ). 그리고, 성 역할 선호에 있어서 실험자의 성별에 따른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3) 성 역할 식별과 성 역할 선호간의 상관관계  
3, 4, 5세 아동의 성 역할 식별 수준과 성 역할 선호 수준간의 상관관계는 피험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의 경우 3, 4, 5세의 각 연령층에서 성 역할 식별과 성 역할 선호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 $P < .05$ ,  $P < .05$ ,  $P < .05$ ), 여아의 경우 5세에서만 성 역할 식별과 성 역할 선호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P < .05$ ).

## 2) 父母間의 養育態度의 一致度와 兒童의 性格特性과의 相關研究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員

田 敬 淑

###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兒童이 知覺된 父母의 養育態度의 一致度(Consistency)가 兒童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한다. 父母변인의 分割을 통해서, 父母가 養育의 方法, 態度 哲學 등에 있어서 一致하느냐 一致하지 않느냐, 또 그 一致의 方向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兒童의 성격특성과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성격형성의 한 결정요인으로서의 父母間의 養育態度와 方法의 一致度の 중요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2. 研究의 問題

本 研究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問題는 다음과 같다.

- 1) 兒童에 의해 知覺된 父母間의 養育態度의 一致度는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母의 직업유무는 父母間의 養育態度의 一致度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父母의 연령차, 교육수준에 따라 父母間의 養育態度의 一致度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긍정적인 一致, 不一致, 부정적인 一致의 수준(High, Middle, Low)에 따라 성격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5) 긍정적인 一致度가 높은 가정의 兒童, 不一致가 높은 가정의 兒童, 부정적인 一致度가 높은 가정의 兒童間의 성격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3. 研究方法 및 資料處理

상기한 문제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363명의 국민학교 5학년(도시: 219명, 농촌: 144명)들에게 성격특성을 알아보는 성격진단검사와 兒童에 의해서 知覺된 父母의 養育態度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해서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지역별, 母의 직업유무별, 부모의 연령차별, 父母間의 一致度類型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 SD를 내고 유의도 검증을 위해 T-test를 했으며, 父母의 교육수준별로 본 父母間의 一致度 類型차이와 긍정적, 부정적 一致와 不一致態度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의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를 하였다.

### 4. 研究의 結果

本 研究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父母間의 養育態度의 一致度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2) 母의 직업유무에 따라 父母間의 一致度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 3) 父母의 연령차에 따라 父·母間의 一致度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4) 父母의 교육수준에 따라 父·母間의 一致度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 5) 父母의 긍정적 一致度, 不一致度, 부정적 一致度에 따라 兒童의 性格特性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 긍정적 一致度가 높음에 따라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월등하게 높으며 반대로 우울경향, 불안경향은 낮았다. ( $P < .001$ )

나) 不一致度가 높음에 따라 안정성 ( $P < .05$ ) 사회성 ( $P < .01$ ), 책임성 ( $P < .001$ ), 우월성 ( $P < .01$ )이 낮고 우울경향, 불안경향 ( $P < .01$ )은 높았다.

다) 부정적 一致度가 높음에 따라 안정성 ( $P < .05$ ), 사회성 ( $P < .01$ ), 우월성 ( $P < .01$ )이 낮고 우울경향 ( $P < .01$ )은 높았다.

1) 성장기의 영양이 그 이후 고 cholestrel  
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내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송요숙

본 연구는 식이내 지방의 종류와 수준이 체내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기에 섭취한 식이내 지방의 종류와 수준이 그 이후에 섭취하는 고 cholesterol 식이에 의한 체내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실험동물로는 평균체중이  $58 \pm 1.1$ g 인 Wistar 종 것 떨어진 흰쥐를 사용하였으며, 처음 6주간은 식이내 지방의 종류로는 대두유, 대두유+우지(중량비로 50:50), 우지를 사용하여 각각의 함유수준이 총 열량의 3%, 9%, 45%인 9개의 식이군으로 사육한 후 전 실험군을 고 cholesterol 식이(2% cholesterol 식이)로 나중 6주간을 더 사육하였다. 각 실험군마다 성장 및 지방흡수율, 혈청내 각종 지방함량, 신체내 총 지방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처음 6주간의 식이 섭취량은 식이내 지방수준이 높은 45%지방군이 다른 두 수준의 지방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고 열량섭취량 및 체중증가량은 대두유군을 제외한 나머지 두군에서는 45%지방군이 높은 경향이였다. 고 cholesterol 식이를 섭취한 나중 6주간의 식이섭취량 및 열량섭취량은 모든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증가량은 처음 6주간에 체중증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던 대두유+우지군과 우지군의 45%지방군이 나머지 모든 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실험 12주에는 모든 실험군의 체중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지방의 흡수율은 실험 6주에는 식이내 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의 함유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하였으나 실험 12주에는 실험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혈청내 총지방량은 실험 9주에는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3%지방군이 낮은 경향이였으며 9%와 45%지방군에서는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 실험 12주에는 성장기에 섭취한 식이내 지방의 종류와 수준에 관계없이 혈청내 총 지방량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혈청내 인지질량과 중성지방량은 실험 6주와 실험 12주에 각각 모든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청내 총 cholesterol 량은 실험 6주에 식이내 지방의 종류와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우지군이 대두유군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처음 6주이후 고 cholesterol 식이를 섭취한 실험 12주에는 혈청내 총 cholesterol 량이 실험 6주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성장기에 섭취한 식이 내용에 관계없이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내 축적된 총 지방량은 실험 6주에 식이내 지방의 종류와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실험 12주에도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6주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 小麥粉 調理에 關한 研究

Butter 分量에 따른 Choux 形成에 關하여

嶺南大學校 家政大學 家政學科

李 貞 淑

Choux Puff 를 製品化할 時에 一般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Choux 形態에 關한 것이다. 著者는 Choux 調理時의 複雜한 操作過程時 일어나는 失敗의 原因과 Butter 分量에 따른 Choux 形成에 關하여 實驗한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1. Flour 32.5g Egg 100g Butter 30g 을 標準으로 하여 Butter 分量을 각각 20g, 25g, 35g, 40g 을 試料로 하였다.

Butter 分量에 따른 Choux Puff 形成을 檢討하였드니 Butter 30g 가 제일 좋았고 Butter 25g 와 35g 가 같은 成績을 나타내었으며 Butter 20g,



40 g 는 形態成積이 떨어졌다.

2. 膨化作用에 있어서는 第一加熱時 操作程中 물을 끊어서 Butter 를 넣고 卵을 投入해서 加熱攪拌할 때에 溫度 65°C~70°C 間的 操作이 重要하였다.

卵과의 Emulsion 狀態를 充分히 保有하여 卵熱變性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膨化作用에 起因되었다.

3. 室溫 20°C 에서 5種의 Choux Paste 를 Texturometer 에 의해서 組織의 硬度和 附着性을 測定하였더니 硬度 1.1 kg - 2.0 kg 까지는 比較的 膨化가 좋았으나 2.0 kg 以上인 것은 좋지 않았다.

附着性은 硬度和 平衡의이었으며 附着性에는 膨化에 별다른 關係가 되지 않았다. 膨化에 關係되는 附着性은 大概 0.0264 mg - 0.0336 mg 程度가 좋았다.

4. 室溫 20°C 에서 E形 粘度計(Visionic-ED形) 에 의해서 Choux-Paste 의 精調性を 測定하였더니 硬度和 一致하였다.

5. 電子顯微鏡에 의해서 Choux Paste 五種의 分量에 따른 Butter 顆粒狀態를 檢鏡하였더니 膨化가 좋은 것은 脂肪球가 微粒狀態로 分布되어 있었다. 따라서 膨化도가 좋은 關係로 體積이 우수하였다.

6. 操作過程中 第二加熱에서 Oven Pan 에 2 cm 의 間隔으로 나열하고 200°C 정도에서 15分間 加熱後 溫度를 130°C 정도로 下降시켜 5分間 두었다가 정지하여 餘熱로서 5分間 乾燥하였더니 Butter 35 g 가 體積膨化에 있어서 1%의 有意差를 나타내고 Butter 25 g 과 30 g 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Butter 20 g 40 g 는 低調率을 나타내었다.

7. 管能檢査는 順位法으로 判定한 結果 Butter 30 g 가 우수하였고 다음으로 Butter 25 g 35 g 었었다.

體積膨化率에서는 Butter 35 g 가 良好하였으며 油脂와 卵의 乳化作用이 重要하고 第一加熱에서 卵熱變性(Emulsion)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認定되었다.

### 3) 한국산 감귤류 껍질 내의 Pectin 함량과 Pectin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학과

교수 문수재·손경희·윤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생활과

#### 이 명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감귤류 껍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주 밀감의 껍질에서 Pectin을 추출하여 pectin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추출한 pectin의 특성과 pectin gel의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출한 pectin과 commercial pectin을 시료로 하여 수분과, 회분 함량, equivalent weight, methoxyl 함량, degree of esterification (DE), acetyl 함량, anhydrouronic acid (AUA) 함량, intrinsic viscosity 및 molecular weight를 측정하였다. pectin gel 특성은 Exchange Ridgeline를 사용하여 jelly grade를 측정하고, Texturometer를 사용하여 texture를 측정하여 commercial pectin과 비교 검토 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주 밀감 껍질과 albedo의 pectin 함량은 dry weight basis로 각각 11.52%, 9.3%였다.

2. 껍질에서 추출한 pectin의 equivalent weight, methoxyl 함량, DE는 각각 596, 13.41%, 82.18%로서 high methoxyl pectin에 속하며 rapid set pectin이었고, acetyl 함량은 0.125%로서 gel 형성에 방해를 주는 범위는 아니었다. Viscosity와 molecular weight가 commercial pectin에 비하여 높았고, 순도를 나타내는 AUA 함량도 commercial pectin에 비해서 높아 98.4%로서 매우 우수한 gel 형성 능력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었다.

3. 추출한 pectin의 jelly grade는 138.1로서 commercial pectin의 125.3, 123.9에 비해 높아 질이 우수한 pectin으로 나타났다.

4. Texturometer에 의한 gel의 texture 측정결

과 hardness, cohesiveness, adhesiveness, gumminess는 모두 추출한 pectin이 commercial pectin에 비하여 낮았으며, 이때 얻어진 curve의 비교시 commercial pectin과 추출한 pectin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한국산 감귤류 폐과피 내에 함유된 pectin은 순도가 높고 우수한 gel 형성 능력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폐기물로 처리되는 다량의 과피를 이용하여 pectin을 생산하여 실제 식품 공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4) 영양교육이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과

강사 김 혜 경

영양교육이란 영양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 교육함으로써 일정한 대상의 식습관 개선과 나아가서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수입(경제적 상태), 지리적위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FNEP(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은 저소득층,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주부들을 교육 시킴으로써 가족 전체의 식습관을 개선, 나아가서는 영양상태를 높히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란 4인 가족의 연간 수입이 \$6,662 미만(약 466만원)을 말한다. 이 program은 미국 농림부와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New York City에는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6개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데 그중에 Brooklyn 지역의 가정주부들을 선정하여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민족간의 차이, 가정주부의 연령에 따른 식습관의 개선 상태와 4가지 기초식품군에 따른 섭취 상태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영양섭취 상태는 주부들을 직접 찾아가, Food recall(식품회상법)을 통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주부들이 영양교육을 얼마만큼 마

르느냐를 측정하여 영양교육 program을 계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한다. 대상으로서는 Brooklyn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을 60명 무작위추출하였다. 모든 자료는 1981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집되었다. 대상가족의 77%가 월수입 \$520미만을 나타냈다. 인종 구성으로는 Black이 33%, Puerto Rican이 52%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로서는 아시아인과 중남미인들이었다. 주부들의 연령은 20세에서 44세가 70%로서 가장 많았고 19세미만이 25%를 나타냈다. 평균 자녀수는 2.8명이었다. 주부들에 의한 식품회상을 통해 하루 섭취한 별식을 기초식품 4군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다.

저소득층에 있어서 영양 보다는 다른 경제적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영양자체는 그들의 마지막 관심사가 되어 대부분의 식사가 질적이라기보다는 양적으로 치중된것을 볼 수 있다. 민족간의 영양개선상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아마 비슷한 경제상태와 교육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든 주부일수록 영양교육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십대의 주부들은 잘 따르지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부들은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매스컴의 혜택을 덜 받으므로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식습관의 개선을 볼수 있기에 계속 모든 대상을 교육하여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 전체가 협력하여야겠다.

#### 5) 食品 配合의 特異性 調査 研究

—釜山地域을 中心으로—

東亞大學校 食營科

助教授 朴 貴 善

균형된 食事 形態로 기초 식품군별 배합이 권장되고 있으나, 食品의 혼식 또는 配合時에 有毒性 有無로 금기식 또한 강조되고 있다.

本 研究者는 금기 보다는 권장의 必要性을 강조하기 위하여 食品 配合의 긍정적 特異性을 조사하

었던 바 어떤 특정 食品에는 반드시 “그 食品만은” 꼭 배합시키는 食습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식품 공해 問題까지 극대화 되고 있는 現實에서 식품을 서로 배합하므로써 그 中の 毒性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동시에 영양적 보완을 꾀할 수 있다면 영양학적 견지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져 調査에 착수하였다.

本 研究는 질문지를 作成하여 本校生 年人員 170名을 임의 선정하여 配合 食品 사례와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토록 준비하였으며, 자료 정리는 식품군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配合이 特異하다고 간주되는 식품 사례는 총 19 種에 배합 사례는 총 24 種이었다.
2. 배합 이유의 출처를 대별하면
  - 가. 식품 특유의 有毒 현상이 서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 나. 소화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다. 영양적 보완을 하기 때문이라는 結論이었다.

## 6) 식이내 단백질 제한과 회복이 흰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李 貴 世 羅

본 연구는 식이내 단백질의 수준이 다를 때 태아 발달에서부터 출생후, 그리고 이유 후까지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저단백식이인 7% casein 식이와 표준식이인 20% casein 식이로 어미쥐를 사육시켜서 임신 14일의 태아와 출생 직후 새끼쥐의 체구성성분을 비교 관찰한 결과 임신 14일의 태아는 어미의 식이에 관계없이 체중, 체구성성분의 함량 및 함유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직후 새끼쥐는 저단백식으로 사육된 어미쥐에게서 출생한 새끼쥐가 표준식으로 사육된 어미쥐의 새끼쥐보다 체중, 체단백질량, 체지방량 및 체지방함유율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단백질 함유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casein 식이로 사육된 어미쥐의 새끼를 이

유후 또는 이유후 2주째에 20% casein 식이로 전환해서는 체구성성분의 변화중 지방함유율의 증가가 특히 뚜렷하였으며 표준군의 이유 4주시 체중에 도달한 생후 61일(이유직후에 20% casein 식이로 전환한 경우)과 생후 77일(이유후 2주째에 식이전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나이의 표준군과 비교해서 체단백질함유율 및 지방함유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체중에서는 20% casein 식이로 사육되어온 표준군과 식이전환을 한 실험군의 체구성성분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내 질소보유율은 같은 나이의 표준군보다 식이전환을 한 실험군이 높았으며 같은 체중일지라도 과거 저단백식이의 역사가 있는 경우엔 체내 질소보유율이 높았다.

## 7) Cholesterol 첨가식이 흰쥐의 체내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 육 회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지방 섭취량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 아직도 중·저지방 섭취 수준을 못 벗어나고 또한 매일 cholesterol 이 다량 함유된 육류를 섭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채식 위주에 가끔씩 육류를 다량 섭취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사려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젓 뿔어진 흰쥐 84 마리를 지방에서 섭취하는 열량을 3%, 9%로 하고 각각의 지방 수준에서 cholesterol 을 섭취하는 군, 격일마다 섭취하는 군, 매일 섭취하는 군 등 총 6 종류의 식이로 사육시켜 실험 6주에 42마리를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10 주까지 사육했다.

각 실험군의 지방 흡수율과 혈청내 총 지방량, 총 cholesterol 량, 총 phospholipid 량을 측정하였고 간의 무게와 간의 지방량을 측정하였으며 신 체내 총 체지방 축적량 및 축적물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섭취 지방의 흡수율은 9%지방군이 3%지방군보

다 흡수율이 높고 또한 cholesterol 섭취량이 많은 군에서 cholesterol를 전혀 섭취 않는 군보다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혈청내 총 지방량 및 cholesterol량은 각 실험 식이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혈청내 총 지방량은 cholesterol 섭취군이 섭취 않는 군보다 높은 경향이며 격일로 cholesterol 섭취군은 cholesterol 섭취 않는 군보다 혈청 총 지방량이 낮은 경향을 보여 줬다. 혈청 총 cholesterol량은 3%지방군에 비해 9%지방군에서 식이로 cholesterol 섭취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격일로 cholesterol 섭취군은 섭취 않는 군과 혈청 총 phospholipid량은 식이내 지방의 수준 cholesterol 섭취에 따른 유의적 차이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간의 무게와 총 지방량은 3%지방군보다 9%지방군이 높았고 또 두 지방 수준에서 cholesterol

섭취량이 많은 군에서 cholesterol 섭취 않는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총 체지방 축적량 및 축적률은 본 연구의 식이중 지방 수준, cholesterol 섭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식이중 지방 수준보다 cholesterol의 존재가 혈청이나 간에 함유된 총 지방량 및 cholesterol 총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격일마다 cholesterol 섭취하는 군이 cholesterol 섭취하지 않는 군에 비해 혈청의 지방량 및 cholesterol량은 감소하고 간의 무게와 총 지방량은 증가한 경향으로 볼 때 식이중 cholesterol의 섭취방법이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려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 섭취 수준과 cholesterol의 섭취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의생활 분야

### 1) 한국인의 신체성장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전 경 숙

인체의 성장에서 치수의 증가는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정량적인 것이나 형태의 변화는 이 보다 복잡하다.

인체의 각 부위가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고 불균일하므로 체형(body-type)의 변화를 조래하게 된다. 인체와 의복은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측면에서 관련이 깊고 의복의 기능과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학화, 전문화되고 있다.

의복이 착의기체인 인체에 피복되었을 때 우선 착용자의 형태와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성학적 견지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국인 남녀의 생체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성장과 비례의 성장과 연

령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 연구를 raw data로 하여

- 1) 16개 연구항목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남녀차에 대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한다.
- 2) 20~24세를 기준으로 각 연령에서의 성장률을 구한다.
- 3) 각 연령의 신장을 100으로 하여 신체 각 부위의 비례치를 산출하여 신체비례도를 작성한다.
- 4) 12개 지수항목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연령별, 성별로 산출하고 유의차검정을 실시한다.
- 5) 지수항목들을 높이 둘레, 나비, 두께항목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변화를 그린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장률의 성별, 연령별 비교를 보면 길이부위나 높이부위에서 모두 상체가 먼저 발달하고 하체가 늦게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자의 성장률이 남자보다 높으며 특히 12세를 전후한 연령에서는 남자의 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격급히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는 16세, 남자는 18~19세에 성인값의 97% 이상의 성장을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2년 빠르게 성인의 신체비례에 접근한다.

2) 신체비례도에서 높이항목이 나비항목에 비해 먼저 성인치에 도달하며 두신지수는 6세 남자는 5.4, 여자는 5.5이며 여자는 12세에 6.6으로 성인의 6.7에 가깝고 남자는 16세에 6.6이 되어 성인의 6.8에 가깝게 된다.

3) 길이항목의 지수들을 분석한 결과 여자는 남자보다 허리선이 높으며 얇은 키의 비율도 높아 결국 여자는 허리에서 살까지가 남자보다 긴 것으로 보인다. 또 상지장은 남자가 길고 하지장은 여자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2) 女性的 職業과 衣裳興味 領域간의 相關性 研究

전국대학교

李仁子·簡文子

本 研究에서는 女性的 職業중 教師, 會社員, 銀行員, 醫師 및 看護員, 藝術人, 商業, 技能職 및 職을 갖지 않은 主婦의 衣裳興味の 領域을 調査分析하여 어떤 종류의 職業이 衣裳興味중 특정영역에 더 興味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本 研究에서 사용된 衣裳興味는 李仁子교수의 “衣裳興味度 檢査紙”<sup>1)</sup>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衣裳興味の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衣服構成 및 製作에 관한 興味
2. 衣服디자인과 流行에 관한 興味
3. 衣類 및 악세사리의 쇼핑에 관한 興味
4. 衣類計劃이나 整理에 관한 興味
5. 衣服의 社會心理的 役割에 관한 興味

女性的 職業외에 부가적으로 年齡, 家庭의 月收入, 學歷과 衣裳興味와의 相關性을 調査하고자 하였다.

위의 調査를 위하여 서울시내 직업여성 668명을 對象으로 衣裳의 興味度 측정검사를 하였다. 여성의 職業과 衣裳興味領域의 相關性을 조사하기

위하여 컴퓨터(KIST의 SAS-Package IBM 370)를 사용하여 變量分析을 하였고 信賴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F-test를 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本 研究에서 밝혀진 주요사실은 다음과 같다.

1. 藝術에 종사하는 女性은 衣服디자인과 流行에 관한 興味와 衣類 및 악세사리의 쇼핑에 관한 興味가 높았다. ( $p < .001$ ) 또한 衣服의 社會心理的 役割에 관한 興味도 높았다( $p < .01$ ).
2. 技能職에 종사하는 女性은 衣服構成 및 製作에 관한 興味와 衣類計劃이나 整理에 관한 興味가 높았다( $p < .001$ ).
3. 公社員과 銀行員은 衣服의 社會心理的 役割에 관해서 藝術人보다는 낮았다지만 비교적 높은 興味를 갖고 있었다( $p < .01$ ).
4. 商業에 종사하는 女性은 衣類 및 악세사리의 쇼핑에 관한 興味가 낮았다( $p < .001$ ).
5. 教師, 醫師 및 간호원과 職業을 갖지 않은 主婦는 전반적으로 衣裳興味が 낮았다( $p < .01$ ).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아본 年齡, 家庭의 月收入, 學歷과의 관계는 年齡이 낮을수록 衣服디자인과 流行에 관한 흥미와 衣類 및 악세사리의 쇼핑에 관한 흥미가 높으며, 家庭의 月收入에 따라서는 月收入이 증가할수록 衣服디자인과 流行에 관한 興味 및 衣服의 社會心理的 役割에 관한 興味가 높았다. 學歷이 높아짐에 따라 衣服構成 및 製作에 관한 興味와 衣類計劃이나 整理에 관한 흥미는 낮아졌으나 衣服디자인과 流行에 관한 흥미와 衣服의 社會心理的 役割에 관한 흥미에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

## 3) 韓日古代服飾關係研究

이화여대 가정대 가정학과  
의류직물학전공 박사과정 2학기

김문자

本 研究는 우리나라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우리 服飾이 日本服飾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古代服飾은 騎馬에 편리한 北方遊牧民族의 服飾系統에 속하고 있으며, 또한 일찍

기 우리나라는 日本에 앞서는 先進文化地域으로서 服飾文化에 있어서도 日本은 그 기본을 우리나라 服飾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그중에서도 三國時代를 중심으로한 古代服飾史는 韓國樣式이 日本服飾에 끼친 영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 冠帽은 우리나라 遺物이나 壁畫, 日本의 主墳出土品이나 埴輪[하니와]등을 통하여 臺輪式冠·立舉式冠·弁形帽·鳥羽冠·弁形帽·高頂巾 등에서 韓日間에 그 공통적 樣相을 발견할 수 있다.

(2) 衣服에 있어서, 上衣는 男女가 모두 左襟·窄袖·盤領또는 直領으로된 襦를 着用하였으며 下衣는 男子는 袴[裪], 女子는 裳 또는 裙을 着用하였다.

이같은 服裝을 高句麗·百濟·新羅人의 基本服裝으로, 日本의 埴輪[하니와]·天壽國繡帳·高松塚古墳壁畫 人物像에 나타난 服裝形態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腰帶에 있어서도 韓國과 日本은 그 着用法와 形態에 있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帶金具에 있어 忍冬唐草文을 두나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신에 있어 金銅履가 韓國과 日本의 古墳에서 出土되고 있다. 이 金銅履는 특별한 행사때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4) 裝身具(귀걸이·목걸이·팔찌·반지)에 있어서도 韓日間에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귀걸이는 치자실형과 심엽형의 귀걸이가 있었으며, 목걸이는 각종의 飾玉을 사용하였고, 또한 팔찌는 蛇腹目文을 그 틀레에 새긴 楕, 반지에 있어서는 有文菱形狀의 형태를 사용하였다는 것에서 韓日間에 그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裝身具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日本에 비하여 우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스커트製作을 위한 原型研究

—18세~24세 女性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林元子·崔賢淑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國內外 研究들은, 人體가 제반 환경요인의 영향

을 받아 그 成長과 各 部位의 치수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냄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女性을 위한 衣服原型 製作을 위하여는 他民族과 차이를 보이는 部位에 대한 科學的 研究를 근거로한 製作이 필요하다.

#### 2. 研究問題의 敘述

최근의 社會, 經濟的 發達로 인한 衣類의 大量 生産 및 既成服化 추세로 製作이 용이하면서도 잘 맞는 衣服原型의 研究는 時急한데,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서울대 衣類學科에 의한 全國規模의 計測으로 우리나라 女性의 人體에 대한 科學的 파악 및 이에 근거한 衣服原型研究가 可能하게 되었다.

### II. 研究資料 및 方法

#### 1. 原型構成項目的 設定

人體 各 部位의 치수 중 本研究의 영역인 스커트 구성에 필요한 部位 총 16개 項目 가운데, 原型構成에 利用될 代表項目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래의 과정을 거쳤다.

##### ① 他 主要原型의 蒐集과 分析

② 國民標準體位調査研究 結果의 考察: 國民標準體位調査研究 報告書에 나타난 14項目에 대해 相關關係로써 代表項目的 設定을 피하였다.

③ 部分計測: 上記報告書에 누락된 2項目에 대하여 部分計測을 實施하였다.

#### 2. 原型製作 및 着用實驗

完成된 스커트原型의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2차에 걸쳐 人體에의 착용실험을 實施하여 최종적 원형을 완성하였다.

#### 3. 官能檢査

새로운 原型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panel 단에 의한 觀능점사를 실시, 그 결과를 分析하였다.

### III. 結果 및 考察

#### 1. 既存原型의 比較分析

10種의 蒐集된 스커트원형들은 그 製圖法상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部位와 적용되는 치수에 있어서 多樣性을 보이고 있다.

#### 2. 國民標準體位調査研究와 部分計測의 처리결과:

相關關係分析에 의하여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代表項目으로, 엉덩이길이는 獨立項目으로 設定되었다.

3. 分析結果의 適用 및 着用實驗에 의한 原型製作 :

새로운 原型製圖法의 完成을 보았다. (내용이 길므로 원문에서 언급하겠음)

4. 官能檢査에 의한 새원형의 評價 ;

比較對象으로 반도패션의 원형을 택하여 檢査한 結果, 17항목 중 13항목에서 有意差가 나타났으며 새로운 原型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 Ⅵ. 結 論

새로운 스커트原型의 製作을 위하여 전국규모의 科學的計測을 토대로 하였고, 관능검사를 통한 새원형의 우수성의 입증을 얻었으나, 더 넓은 分野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 5)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全感—不安感의 關係에 대한 研究

—서울市內의 女高生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崔 惠 善

靑少年期는 兒童期로부터 成人期로 移行하는 過渡期로서 이 時期에 어떤 經驗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後의 人間形成이 左右된다고 할 수 있어 人間의 精神發達上에서 매우 큰 意味가 있는 時期이다. 이들은 過渡期的 不安과 自我意識의 高揚으로 어느 時期보다 의모와 衣服에도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靑

少年 集團 中, 女高生들의 衣服行動을 把握하고 社會的 安全感—不安感과의 關係성을 糾明하고자 하였다.

測定方法에 있어서는 Creekmore(1971)의 8個 衣服行動變因調查를 기초로 하여 本 研究者가 우리나라 女高生에게 맞도록 說問을 修正, 補完하여 各 變因별로 9問項씩 作成하여 衣服行動을 조사하고 社會的 安全感—不安感 조사는 Lapitsky(1961)에 의하여 作成된 25個 問項의 社會的 安全感 檢査紙(Social Security Inventory)를 使用하였다.

標集對象은 서울市內의 3개 女子高等學校 1,2學年 總 389名으로 構成되었고 統計處理는 컴퓨터를 使用하여 度數分布, 平均値, 標準偏差를 算出한 후 相關係數를 求하고  $\chi^2$ -檢證, T-檢證하였다.

本 研究의 資料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衣服行動 8個 變因, 즉 便易性, 管理性,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禮儀性, 注意集中性, 審美性, 興味性的의 相互關係 總 28個 가운데 22個가  $p < .01$  水準에서 正 혹은 否의으로 有意的인 相關關係가 있었다.

2. 衣服行動 8個 變因 中에서 興味性,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禮儀性, 審美性등 5個 變因이  $p < .05$  水準에서 社會的 安全感, 不安感和 有意的인 關係가 있었다.

3. 衣服行動 變因의 順位는 禮儀性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便易性, 審美性, 興味性, 心理的 依存性, 管理性, 社會的 認定性, 注意集中性的의 順으로 나뉘었다.

4. 衣服行動 8個 變因中에서 興味性, 禮儀性, 注意集中性, 審美性등 4個 變因이  $p < .05$  水準에서 學年間에 有意的인 差異를 보였다.